



# 時計塔

SIGETOP



2018년 10월 20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5권 4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발행인: 鄭均熙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燮 徐仁錫  
李善姬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SNUCMAA OF NA**

## 36th Annual Medical Convention

March 20 (Wed) ~ 24 (Sun), 2019  
Pacific Palms Resort at City of Industry  
California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 제 36차 학술대회가 2019년 3월 20일(수), 21(목)의 골프로 시작되어  
3월 24일(일)까지 캘리포니아주 Pacific Palms Resort에서 개최 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여러 분야의 전공의를 모시고 새로운 주제로 진행되는 CME와,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유익하고 다양한 Non-CME도 함께 진행할 예정 입니다.

또한 3월 24일 출발하는 3박4일 일정의 Post-Convention Tour는  
첫날 라스베가스의 Le Reve Show를 관람을 시작으로, 이틀날은 Bryce Canyon과 Zion Canyon,  
사흘 째는 경이로운 Grand Canyon 등 서부 관광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미주 동문들은 물론 서울 동문들의 많은 참여로 기억에 남는 동창회 모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회장 정 균 희 (72)



# 2018-2019 제1차 이사회 초록

일시: 2018년 9월 29일 3시(동부시간)  
 장소: 동부 (NY 지역), Double Tree Hilton hotel, Fort Lee, NJ  
 이만택(58) 채규철(59) 추재욱(63) 최준희(64) 이명희(66) 최영자(66) 서운석(68)  
 서 램(69) 강창홍(71) 광승용(71) 서인석(73) 한승신(76) 이선희(81)  
 백승석(fund manager)



서부, JJ Grand Hotel, Los Angeles CA  
 김태웅(63) 김성환(71) 김일영(71)  
 이원택(71) 정근희(72) 최광희(76)  
 Proxy:  
 이희경(61) 김택수(63) 한기현(63)  
 허선행(64) 신용계(66) 최순채(66)  
 김명원(68) 주광국(68) 조세진(71)  
 오용호(72) 고용규(73) 전경배(75)  
 한민우(75) 김대중(76) 김동훈(77)  
 백승원(79) 차민영(82) 심인보(83) 서귀숙(84) 이도은(99) 장세권(01) 송경민(09)



1. 동부, 서부 참석 인원 소개 및 Proxy 점검 후 정근희 회장이 대의원회 개회 선언함.
2. 지난 "2017-2018, 제2차 대의원회 회의" 의 초록에 대하여 재청과 승인이 있었음.
3. Agenda로 AASCDTF에 대한 의논이 있었음.  
 10월 6일 처음 개최되는 AASCTF forum이 현철수 chairman(외부인사) 주최로 열리는데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 회원의 지지가 있도록 격려를 하자는 의논이 있었고, 광고비 정도의 지원을 동창회에서 하자는 의논이 되었음.
4. 지난 회기 주광국(68) 재무의 회계보고가 finance committee chairman의 audit 을 거쳐서 이사회에 보고가 되었음. (한승신 전임 회장의 대리 보고가 이사회에서 됨)
  - a. Income: Total \$279,471.51  
 동창회비 \$70,280.17 35차 학술대회 Registration \$55,890.00 각 donation \$111,746.14 Scholarship fund includes 김태웅 장학금 \$10,000하여 \$41,555.20 이 내용임.
  - b. Expense: Total \$232,279.34  
 각 committee expense와 Scholarship, 인쇄비, 사무실 경비, Revenue sharing과 35차 학술대회 지불의 상세 내역이 발표됨.
  - c. Total Current Balance 한승신 회기는 \$45,192.17 임을 이사회에 보고 되었음.
  - d. 한승신 회기에서 존백이 투자하는 investment account로 \$50,000로 보내져서 정근희 회기의 은행구좌 시작이 \$226,973.54 임을 발표 하였음. 이는 이전일 회기의 은행 구좌 balance에 한승신 회기의 surplus 잔액이 합해진 액수에서 Special investment \$50,000이 보내진 것을 뺀 액수임.
  - e. 35차 학술대회의 financial 내용이 상세 보고가 되었음.  
 전체 revenue가 \$123,388.30이며, expense는 \$91,981.21로 \$31,406.09의 surplus가 났던 35차 학술대회였음을 보고함.
  - f. Green Project fund는 전체 revenue가 \$6,920.70, expense는 \$8,435.55로 \$1,514.85의 적자가 났음을 보고함.
  - g. Scholarship fund는 전체 revenue가 \$46,251.90, expense는 \$29,800.00로 되어 \$16,451.90 surplus가 되었고, 이는 general fund와 합쳐져서 \$50,000 special 투자에

- 보내졌음이 보고가 됨.
5. Scholarship Fund Management 이명희(68) 위원장, 존백 fund manager 보고.  
 현재 서울의대미주동창회의 fund 상세 설명이 있었음. 분산 투자로 가감의 위험성을 줄이고, 현재 투자한 곳이 경제 변화에 안전함이 설명 됨.
6. Publication Committee 서운석(68) 위원장 보고
  - a. 지난 7월호 시계탐부터 신문 종이의 재질을 높힌 것에 대한 반응이 매우 호응적임이 발표가 되었음.
  - b. 투고 장려를 위하여 실시하여온 우수 작품상을 매 2년에서 3년에 한 번으로 재조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함. 이유는 현재 들어오는 원고가 많기 때문임.
  - c. 양질의 원고를 시계탐에 실을 수 있는 원고(letter size 2-3장 이내로 제한)로 다양한 주제가 시계탐에 오르게 너무 개인 취향의 원고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보고를 하였음.
7. Website committee (서면 보고, 서운석 편집장의 대신 보고)  
 많이 안정된 상태로 현재의 website를 더욱 많이 알려져 전 회원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보고가 있었음.
  - a. Snuammaus.org에 log in하면 homepage에 새로운 소식과 광고가 바로 볼 수 있고, 매년 있는 학술대회의 행사소식과 사진이 올라 있음.
  - b. 2019년도 36차 학술대회의 공고 내용과 AASCDTF(Asian American Stomach Cancer Task Force) Forum 소식도 게재되어 있음.
  - c. 각 지역의 소식과 부고 등도 바로 올리고 있으므로 각 지부장, 각 동기대표의 협조를 촉구함. 지부소식이나 수필 기행문 등은 snuammausweb@gmail.com으로 보내주기를 요망함.
8. Charity Committee 최영자(66) 위원장 보고
  - a. Donation to COCO: \$2000.00 (Funded by Charity Fund 2017-2018)이 있었음.
  - b. Charity fund를 활성화하기 위해 SeeTestTreat Funding을 노력 하였으나, 각 hospital의 liability 문제에 대면하여 진행을 더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음을 보고함.
  - c. 새 구성원의 힘을 입어 제약회사 등의 fund 조성에 도움을 더 추구하고 싶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에 많은 동문들의 도움을 요청함.
9. Nominating Committee 한승신(76) 위원장 보고  
 2018-2021회기의 10명의 이사로 채규철(59), 최준희(64), 허선행(64), 심완섭(73), 한창규(81), 심인보(83)이 유입되고, 안우성(76), 남명호(81), 이선규(89), 강민중(91)이 새로 이사로 영입이 되었음을 보고. 이사회로부터 재청과 승인이 있었음.
10. Scholarship Committee 이선희(81) 위원장 보고
  - a. 서부에 참석을 한 김태웅(63) 동문이 2019년 9차 김태웅 장학금으로 1년 남은 김태웅 장학금 fund \$10,000/year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10년 만기에 다시 5년의 장학금 fund를 제공하겠다는 pledge를 하여 참석하신 전원의 박수를 받음.
  - b. 서울본교학생의 여름 연수 SNU Elective retreat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뉴저지에서 Green Project member들의 적극적으로 도움과 Publication committee의 공조로 여름 연수생들과의 좋은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음.
  - c. Scholarship committee의 구성원 발표가 있었고,
  - d. 2018년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 장학금이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자녀 상대로 진행이 된 것이 올해 처음으로 paperless로 진행한 것이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보고가 있었음.  
 이 진행에는 US 거주 status와 부모의 세금보고가 추가되어 더욱 확실한 screening이 되었음도 발표가 되었고, 결과 많은 양질의 응모자가 있었고,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2명의 김태웅 장학생과 3명의 SNUCAA 장학생을 선발하였다고 보고 되었다. 이 5명의 장학생 선발자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있었음.

### 특별보고 사항

-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이사장 이만택): 2013부터 금년까지 서울의대에 지원하는 장학생 숫자와 연구기금 수혜자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36차 학술대회의 준비 진행 사항에 대한 언급이 정근희 회장으로 부터 있었고, 많은 임원의 참여와 각 동기들의 참여를 부탁 하였다.
- 별도의 Agenda로 동창회 사무실의 소정의 봉급인상에 이사회 승인의 있었음.
- 다음 회의인 1차 대의원회가 2019년 1월 12일(토)에 있을 것을 발표로 1차 이사회 회의는 종료가 되고 사진촬영과 함께 참석하신 임원들께 감사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 Prepared by 재무, 최광희(76)

## 시계탐 원고에 대한 안내의 말씀

우리의 시계탐에 글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고 내용은 지부소식, 수필, 산문, 기행문, 독후감, 시, 사진작품,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자랑, 경험담, 전문분야에 대한 내용 등 모두 환영합니다.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나친 종교적, 정치적인 사항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원고는 길이가 1면을 넘지 않는 분량입니다. 만일에 그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원고를 돌려보내거나 편집회 임의로 내용을 편집하거나 우리 동창회 website로 보내질 것입니다. 특히 사진은 꼭 필요한 몇 장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45년 역사를 가진 시계탐은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원 여러분들의 눈이요 귀요 입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자랑이요 보물입니다. 이 귀중한 시계탐의 역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안내말씀을 따라 주시면 편집위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 \* 학년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 \* 원고는 email로 혹은 육필의 경우는
  - \* 우편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oun Seok Seo, M.D.  
 15727 Rothschild Court, Haymarket, VA 20169  
 Tel: 419-234-4154  
 E-mail: younseokseo2004@gmail.com 혹은 snuamma@yahoo.com

## 미주동창회 2018년도 그린 프로젝트 장학금 수상 사진



## 미주동창회 Website 안내 말씀

2016년부터 새로운 미주 의대 동창회의 웹사이트가 신설되어 활용 중입니다. snuammaus.org로 들어가셔서 많은 소식과 장학위원회 안내서, 미주 동문들의 소식, 젊은 동문들의 소식, 본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활동사항, 지난 13년간의 시계탐, 여러 동문들의 사진작품, 문학작품 등을 보실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위원회 주광국(68)/송경민(2009) 올림

내용을 보내실 곳: kwangjoo@hotmail.com  
 혹은 minie0802@gmail.com (젊은 세대동문들)

# 동문동정 및 지부소식

## 제1회 멘토상 수상자 김의신(66) 동문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가 2018년 처음으로 실시한 자랑스런 멘토상의 수상식이 지난 35차 학술대회에서 있었다. 영예의 수상을 하신 김의신(66) 동문께서 수상 상금 전액(\$1,000)을 미주동창회에 기부하셨습니다.

## 나두섭(73)동문 '해외문학'에서 시인으로 등단



시계탑 편집위원인 남가주의 나두섭(73) 동문이 지난 8월 31일에 열린 유서깊은 <해외 문학> 시상식에서 '풀꽃' 등의 시로 신인상을 받아 시인으로 등단 되었습니다. 나두섭 동문은 사진도 pro급이지만, 그동안 틈틈이 써 왔던 순수하고도 낭만적인 시로 여학생들의 심금을 울려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아줌마한테도 appeal 하는 시를 써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원택

## 미시간 지부 가을 골프대회

이 화창한 미시간의 초 가을날, 미시간 지부 소식을 보냅니다. 9월 15일 디트로이트 파밍톤 힐 골프코스에서 21명의 회원이 모여서 신나게 골프치고는 만찬을 했습니다. 이 날은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하듯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동문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였습니다. 또 여기에서 50년을 사신 이한중 선배님(65)이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시게 되어서 시상식에 이어 이별만찬을 했습니다. 남성희(62) 동문님이 홀인원을 하시고, 멀리서 오신 황규정(65)사모님이 장타상을 받는 등 큰 잔치를 했습니다 (사진참조). 시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Longest drive: (여) Mrs. 황규정 (남) 강태수(71) / Closest to Pin: (여) Mrs. 채무원(65) (남) 조경하(61) / 일등: (남)오동환/이성길/강태수 팀 (-6), (여) Mrs. 이한중/황규정/채무원(+5) / 이등: (남)남성희/채무원/황규정/이한중(-4), (여) Mrs. 백성기/남성희/윤효윤/이성길 (+8) / 삼등: (남)조의열/문광재/윤효윤(-1) 이성길 미시간 회장 드림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하시는 이한중 동문과 함께

## 편집회 초록

일시 및 장소: 2018년 9월 20일 오후 2시, Double Tree Hotel, New Jersey  
참석자: 서윤석, 서량, 서인석, 이선희, 박은경(email로 참가), 황창근 사장  
재무보고에 이어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보내온 원고에 대하여 즐거운 토론이 있었다. 영문원고는 필수록 피하고 피치 못 할 경우에는 한글로 된 내용을 간추린 안내를 함께 올리도록 결정했다. 또한 긴 원고에 대해서는 너무 길면 반려하거나 나누어서 실을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한 지면을 초과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했다. 편집장이 원고 투고 안내서를 Website 안내서와 함께 이번 호에 올릴 것이다. 원고 교정을 마치고 다음 편집회는 2019년 1월 12일 하기로 합의하고 편집회를 마쳤다. 기록: 편집장



## 워싱턴 버지니아 미시간 지부 소식

워싱턴 동창회원분들께  
지난 8월 30일에 동창회원 내외분들이 설악가든에 모여 화기애애한 좋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두 35분이 참석하였습니다. 현 회장단인 김진수 회장과 조병선 총무는 12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내년에는 68년 동문들이 서윤석 동문을 중심으로 지역 동창회를 꾸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번 모임에서 임종식 동문의 Memoir 판매대금에 우리 지역 동창회원 기금을 보태 \$1,000과 임종식 동문 개인이 \$1,000을 더해 \$2,000을 모교 도서관 건립기금에 기부하였습니다.  
참석자: 강준희, 고영희, 김주평, 김진수, 김철, 김희주, 라길진, 박수웅, 박인영, 방정화, 서휘열, 이웅만, 이종수, 임종식, 정두현, 조병선, 주광국, 진창건, 한달수 그리고 오는 겨울에 의료선교에 같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동문께서는 방정화 동문(jphang42@yahoo.com)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 총무 조병선



## 남가주 지부 - 선후배 친교의 밤

남가주 서울 의대 동창회에서는 2018년 8월 19일 옥스포드 팰레스 호텔에서 오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선후배 친교의 밤을 가졌다. 이날 이현령 이사장의 회장 인준 문의에 전체 동창의 만장일치로 Dr. 안우성은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특히 안우성 회장은 외부 인사들을 한 테이블 초청하고 도네이션까지 넉넉히 받아내 남가주 동창회에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번 선후배 친교의 밤은 백여 명의 선후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옛 추억과 우정을 다짐하는 순간이었다. 흐르는 음악 속에 흥겨운 춤과 유머로 풍요롭게 익어간 분위기는 행복의 빛으로 가득 메워진 듯싶었다.  
이날 북미주 동창회장 정균희는 내년 3월20일부터 3월 24에 개최될 컨벤션의 소개와 함께 많은 참여를 부탁했고, 동창회에서 준비한 버스로 참석한, 라구나 우즈의 동문들로 연회는 더욱 빛나는 듯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동문들은 아쉬움 속에 더 깊은 우정을 다짐하며 헤어졌다.



##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 박병돈(60) 동문 별세**  
은퇴후 뉴저지에서 거주하시던 박병돈(OBGYN 전공) 동문께서 지난 10월 17일 별세하셨습니다.
- 오원환(61) 동문 별세**  
은퇴후 샌디에고에서 거주하시던 오원환(Orthopedic Surgery 전공) 동문께서 지난 10월 20일 별세하셨습니다. 영결식은 오는 11월 17일 11시에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6701 Convey Ct., San Diego, CA 92111)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송영두(62) 동문 별세**  
펜실베이니아주 Glenside에서 거주하시던 송영두(Internao Medicine 전공)동문께서 지난 8월 17일 별세하셨습니다.
- 권태해(65) 동문 별세**  
뉴욕주 Brianciff Manor에 거주하시던 권태해(Oncologic Gynecology Surgeon) 동문께서 별세하시어 장례식을 지난 9월 21일에 가졌습니다.

잘가게 영두야,  
나도 얼마뒤 따라 가는데 - 가는곳이 같을지는 잘모르겠다 내 헛짓이 너같이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았는지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하구나- 남은 세월 열심히 본받아 살아보도록 노력- 영원한 친구 정정수 드림  
Dear Song Yung doo-for last 50 years-you are only one 1962 SNUCMAA classmate although I have resided 30 miles north and you are resided suburbs of Philadelphia. But we have shared activities through Alumni and women organizations. You are introverted and not communicative skills but always eager to serve other people's Including my families Had been religious and deep thinker and so we could attest how many friends showed up to your farewells ceremonies. You also raised engineer son and dentist daughter who are very filial to your couples.

#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수중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오셨나요?
2. 결혼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4. 관심이 있는 그동안 하셨던 연구 분야, 하셨던 임상 전문 분야는?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 들었던 때는?
6. 의대 학창시절 추억 중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한 두개만 소개해 주세요?

7. 다시 태어나신다면 의사가 또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에 일을 하시겠습니까?
8. 자녀 분들을 가르치실때 얻은 경험중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9. 특별한 취미 생활, 현재 건강을 위하여 하시는 비법, 운동이나 생활을 소개 하여 주세요?
10.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나 시계탑 신문 발행에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세요?

## 채규철(59) 선배님

1. 1966년 군복무를 마치고, 수중에 100불.  
2. 아내를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가장 행복한 때는 저의 청혼을 받아주었을 때.  
3. 중학교 3학년 때 작문의 주제가 '장래의 희망이 무엇인가?' 였는데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고통을 줄여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부터이다.  
4. 인상분야는 외과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



움을 당했을 때 참고 견디는 일. 가장 힘들었던 때는 사변때 가족들과 헤어졌을 때.  
6. 학창시절, 체육시간에 체육교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50대가 되어서 지금의 국민보건체조를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7. 다시 태어나도 네 의사가 되겠습니다.  
8. 내일의 소망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  
9. 취미로 사진촬영, 신앙생활, 걷기를 비롯하여 규칙적인 운동, 가족을 비롯하여 친구들과 계속적인 대화.  
10. 동창회보에 조언은 동문 2세들의 적극 참여를 모색하는 일입니다.

## 한달수(59) 선배님

1. 1969년 6월의 대졸업후 꼭 10년 되던 해에 미국에 왔습니다. 1964년에 군복무(해군 군의관)를 마치고 고려의대 부속병원(당시 수도의대) 일반외과에서 수련을 받던 중 급성 간염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후에 이것이 만성 간염으로 진전되는 바람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병에서 회복은 되었으나 그동안의 공백기간 등의 사유로 한국서 자리잡는 것이 어렵겠다고 느껴져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민했습니다. 수중에 \$600 정도 지참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2.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때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였겠지요.  
3. 의예과 입학이 1953년 6.25 동란이 휴전하던 해입니다. 휴전을 앞두고 전투가 더 치열해지면서, 쌍방에서의 희생자 수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면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는 선친의 권고에 따라 의과를 지원했습니다. 의사가 된 동기가 그리 의로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후에 이 직업에 대해 후회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으로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환자중심의 의술을 베푸는 것입니다.  
4. 연구 분야에는 관여한바가 없었고, 임상은 방사선과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반외과에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오랜 병고 끝에 체력이 저하되어 외과는 포기하고 방사선과로 전향했습니다.  
5. 건강이 제일이지요.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즐길 수 있다면 최고이겠지요. 가장 힘들었던 때도 역시 나의 건강 문제와 관련되어서 였지요. 1960년대 후반에 만성 간염으로 장기간 시달림을 받았을 때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고통도 힘들었지만 이에 수반되는 정신적 고민도 이겨내기가 수월치 않았습니다.  
6. 학창시절 과외활동으로 배구와 등산을 택하였습니다. 당시 의과대학 배



구팀은 제법 수준이 높아서 타 단과대학과의 시합에서 자주 이기곤 하였습니다. 산악부의 활동도 활발해서 거의 매 주말마다 북한산, 도봉산 등으로 가서 암벽등반(Rock Climbing)을 하며 체력단련을 도모했습니다. 등산 시에 암벽등반 추락사고 등 위험이 항상 따르게 마련인데, 우리 의대 산악반이 직접 체험한 에피소드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초래된 일이었습니다. 그 유명했던 태풍 엠마 호(Super Typhoon Emma 1956)가 한반도를 휩쓸었을 적에 우리는 오봉 근처 계곡에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 이었는데 계속되는 폭우로 골짜기 물이 넘쳐흘러 천막을 거두고, 높은 장소로 대피해 준비를 맞으며 천둥 번개의 공포속에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밝아 하산하면서 목격한 모든 골짜기들에 범람하는 격류들은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한 계곡을 건너가다가 어떤 대원이 실족으로 인해 큰 참사를 당할뻔도 했지만, 요행이도 모두들 큰 탈없이 귀가했습니다. 그 고생스럽던 날의 장면들이 6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내 추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7. 네, 다시 의사가 되겠습니다. 또 방사선과를 택할 것이며, 특히 Interventional Radiology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다른 분야에서는 먹고 살만한 일들을 찾아낼 것 같지가 않습니다.  
8. 나는 일제강점기때 국민학교(소학교) 5학년까지 다녔습니다. 해방 후에도 훈육과 규율을 좌우명으로 삼았던 엄격한 교장선생님이 이끄는 종교등학교에서 6년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부에 열심히 하였지만, 돌이켜 보건데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모든 정력을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나로서 미국 교육제도를 올바르게 이해 못하고,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실패자임을 자인합니다.  
9. 작년 가을 83세를 넘기면서 건강상태가 좀 시원치 않아져서 여러가지 일상생활에 제한을 좀 받고 있습니다. 좋아했던 여행은 거의 정지상태이고, 골프는 1주일에 한 번정도, 운동이라기보다 카트 신세 지면서 사교골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10. 의대동창, 동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주시는 북미주 동창회 임원님들, 그리고 시계탑 편집위원님들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길진(59) 선배님

1. 1966년 도미, 졸업 후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하고 나서 군복무 3년 제대하는 다음날 미국행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배워서 귀국할 목적이었지요. 지참금은 허용된 50불 + 100불.  
2. 내가 정형외과 수련받던 병원 여자 직원이 자기 친구가 자기를 만나러 왔는데 소개를 해줄까 하여 그때까지 사귀는 여자가 없기에 쾌히 승낙을 했지요. 만나고 보니 이화여대 의과대학 4학년생이고 암전해 보여서 계속 사귀지 2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2년이 걸린 이유는 이화대학 학생은 결혼을 하면 퇴학. 그리고 그녀가 이대병원 인턴을 마칠 때까지 그 2년 동안이 아주 행복했던 기간이었습니다.  
3. 나는 공대 기계공학과를 원했는데 부친께서 자기가 공학 전공을 해서 항상 월급쟁이가 되고보니 의사가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였고 그리고 나도 관심이 있던 차에 의대에 지원을 했지요. 의사로서의 중요한 조건은 환자를 볼 때 자기 가족과 같이 대하라는것, 이것이 나의 의사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나의 개업을 성공적으로 마감했습니다.  
4. 레지던트를 마치고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Cornell University, Hand Surgery Fellowship에 accept가 되었는데 월급이 300불 그때 아파트 Rent가



350불 가족을 데리고 생활할 자신이 없어서 기권을 하고 Ohio에서 개업을 하고 시작은 General Orthopedic 이었고 Arthroscopic Surgery를 아주 초창기에 배워서 전공 분야가 되었고 1984에 AANA Member가 되었습니다.  
5. 건강 취미 살리기, 봉사. 가장 힘들었던 때는 레지던트 하루 걸러 Call 하며 남은 시간은 Moonlighting 하느라 매일 잠을 못자고 고생할 때.  
6. 의대 3, 4학년 때 전종휘 교수님, 홍창익 교수님, 서병설 교수님들을 모시고 무의촌 순회한 것. 그리고 기생충학 교실 Project로 서울대학 전체학생의 대변 검사에 참여한 것.  
7. 정형외과 선택이 나의 적성에 맞는 분야이기에 다시 태어나도 할 수는 있지만 공학도의 나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디다.  
8. 자기 소질과 취미를 적극 지원하는 것. 내가 의사노릇을 하며 너무 바쁘게 지내며 가족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을 본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의사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자기 취미에 맞는 분야를 택해서 행복하게들 살고 있습니다.  
9. 취미는 테니스, 골프, 스키, 하이킹, 오일 페인팅. 그리고 우리 교회 시니어 아카데미 클래스에서 Apple Application, Photos, iTunes, iMovie를 봄 학기 가을학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테니스, 스키는 그만두고 골프, 하이킹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10. 우선 시계탑 편집위원들의 노력과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조언은 없고 더 많은 모교소식 그리고 동창들 소식을 전해 주으면 합니다.

## 한성업(59) 선배님

1. 미국에 온 계기는 전문의수련이 목적이었으나 기회가 생기면 영주해서 살아 보겠다고도 오래전부터 생각 했었지요. 1959년 졸업 후 나는 곧장 공군에 입대하여 장기복무를 지원해서 민간시설에서 인턴교육을 받고 곧 이어서 항공 의무관 수련차 5개의 미 공군기지와 큰 공군병원이 소재한 그리고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살고, 미국과 멕시코간의 전쟁 중에 장렬한 죽음을 당한 미국 전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Alamo가 있는 San Antonio, Texas에 왔습니다. Flight Surgeon (항공군의관)이던 당시 항공의학의 첨단역할을 한 Brooks Air Force Base와 Lakeland 공군병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미국장교들과 같이 생활하는 중에 나의 미국에서의 장래를 꿈꾸며 다시 오겠다고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곧 귀국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끝내고 제대하였습니다. 졸업한지 6년 뒤인 1965년에 뉴욕, Staten Island 에서 두 번째 인턴을 시작했습니다. 도미 당시 허용된 최대 금액이 50불이었어요. 미해군 수송선을 탔던 이유였습니다. 한미재단의 후원으로 미국 유학생을 위하여 저렴한 해군수송선이 마련됐지요. 인턴으로 수련차 미국으



로 떠나온 우리 의사들에게 그 혜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동문들도 맞이 그 중에 끼어 있었지요. 다행히 의사들 대접을 잘 해주어서 배의 엔진 소음이 심한 곳에 있는 유학생과는 달리 우리들을 함정 의무실에서 잠을 재우고 장교식당에서 Waiter들의 시중을 받고 매일 훌륭한 식사대접을 받았어요. 이 저렴한 크루즈는 정말로 즐거웠고 체중이 5파운드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Happy story는 여기까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우리는 package deal로 비행기 여행이 허용되지 않고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몸을 싣게 되었는데 그 후 만 3일 만에 장장 3,000마일, 즉 미 대륙을 횡단하고 말았습니다. 휴식도 없이 매 4시간마다 운전기사가 교체되고 bus stop에서 간단한 식사와 화장실 용무가 허락되었을 뿐이고 버스는 주야로 달렸습니다. 뉴욕에 도착할 무렵에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고 목이 붓고 아프고 편도선에서 병이 생겨 열도 조금 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인턴 근무를 해야 하는데 잘못보이면 찍힐까봐 염려하여 아프다고도 못하고 Penicillin 몇 알을 얻어먹고 주야근무를 했지요.  
2. 배우자는 내가 학습지도를 해주던 학생의 누이였기에 쉽게 자주 접촉할 기회가 있었지요. 결국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곧 내가 도미했으니 한국에서는 살림을 못해봤지요. 새신부는 곧 초청되어 미국으로 따라왔습니다. 병원에서 30분쯤 떨어진 조용하고 아름다운 연못가에(다음면에 계속)

박은경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 이 사람의 향기 10문 10답

### 이익재 (08) 동문

이번 인터뷰를 하고 난 후 청아한 비올라 연주곡 하나 골라서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가을 단풍을 배경으로 누군가와 따뜻한 차를 나누며



턴테이블에 LP판(정식 명칭은 vinyl record)을 올려서 말이지요. 알라바마의 이익재(08) 동문은 비올라와 테니스, 그리고 두 동아리 활동이 맺어주는 끈끈한 인간관계로 짝 찬 학창 시절을 보낸 후, 전북 김제에서 공중보건 의사로 일하면서 동갑내기 아내와 함께 USM LE를 준비하여 미국으로 왔습니다. University of Cincinnati에서 Neurology Residency 및 Neuromuscular Fellowship 수련 후 현재 University of Alabama Birmingham (Birmingham, AL)에서 조교수로 일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연주자들 사이에 흔히 사람은 악기를 닮고 악기는 사람을 닮는다고 합니다. 겸손하고도 부드럽지만 호소력 짙은 비올라 음색을 닮은 이익재 동문을 지면을 통해 만나 보시지요.

#### 1. 어떤 계기로 미국행을 택하셨나요?

본과 3학년 연말고사를 마치고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병원에서 한 달간 클럭칩을 하게 되었어요. 화려한 뉴욕 생활도,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도 새로웠고 좋았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제 곁에 있는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 미국으로 오게 된 가장 큰 계기였지요.

당시 연세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아내(윤예지)도 도미의 꿈이 있어 같은 기간에 뉴욕에서 클럭칩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둘 다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를 연주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면에서 잘 통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서로 연락하며 자연스럽게 함께 미국에서의 미래를 설계하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한편, 먼저 이 길을 걸으셨던 신경과 전범석 교수님으로부터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에게는 당숙이자 신경과 의사로서의 롤 모델이신 분인데, 미국에서의 수련 경험을 바탕으로 제 미국행을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셨고, 특히 미국 아카데미에서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을거라고 격려해 주셨지요.

#### 2. 지금 살고 있는 Birmingham, AL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버밍햄은 알라바마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그럼에도 인구수 100만 정도인 중소 도시입니다. 알라바마는 조지아 옆에 있는 남부의 대표적인 주 중에 하나로, Forrest Gump와 To kill a mockingbird의 배경이기도 했고, 대학 풋볼팀이 아주 유명하지요. 버밍햄은 알라바마 주의 가운데 썸 아팔라치안 산맥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다운타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거주지가 꽤 경사가 있는 산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UAB)가 제가 일하는 곳인데, 도시에서 가장 큰 산업이자 고용주입니다. 사실 버밍햄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와 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신시내티에서 수련을 마치고 첫 어텐딩 포지션을 찾는 과정이 여러 면에서 만만치 않았는데, 왜냐하면 JI비자 웨이버가 가능하고, 대학병원이면서 저희 부부 둘 다 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 정착하는데 동문 선배님이신 오신중(60) 교수님과 김미옥 사모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오신중 선생님께서는 UAB Neuromu-

scular Division의 창시자이시고 40년 이상을 이 분야에 공헌하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가까이서 조언을 얻고 같이 연구도 할 수 있는 이런 멘토를 얻을 수 있는 버밍햄에 오게 된 것이 저에게 큰 행운인 것 같아요.

#### 3. 미국에 온 후 성격이나 생활 패턴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곳 생활이나 병원문화에 잘 맞는지요?

생활 패턴이 달라진 건 사실 미국에 와서라기 보다는 아이들이 생겨서 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수련을 받지 않아서 비교 대상이 없기도 하구요. 어렸을 때 미국에 잠깐 살았고, 의대 재학 중에도 두 번 단기간 머문 경험이 있어서 미국 생활 자체에 대한 큰 두려움은 없었어요. 병원 문화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친절한 교수님들과 따뜻한 동료들 덕분에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수련 중에 교수와 레지던트 사이에 격식이 없는게 참 좋았어요. 생각을 교류하는데 있어서 격식이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미국에 온 후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음식이었어요. 신시내티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하면서 생활은 바쁘게 한국 식료품 구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 외식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는 좋아하던 햄버거, 피자 같은 소위 미국 음식이 여기에서는 참 맛이 없는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병원 안 카페테리아에 화교 출신 중국인 주방장이 하는 중국집이 있어서 점심, 저녁에는 저녁까지 잘 해결을 했었지요. 육개장 등 메뉴판에 없는 한국 음식도 해주시던 주방장님이 종종 생각나요. 버밍햄에서도 같은 고민이 이어지네요. 여기는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이 있어도 사 먹을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아내도 요리 실력이 늘어 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네요.

#### 4. 메뉴에 없는 육개장도 해주셨다니 화교 주방장님 멋지네요. 신경과 중 세부 전공으로 신경근질환(neuromuscular section)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눈물을 흘렸지요. 이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한때였다 봅니다.

6. 우리 때는 대학이 시험지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수한 재시험, 재재시험들 무제한 기회는 주어서 낙제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역시 낙제가 없는 서울의대가 가장 좋은 학교라고 생각했지요. 생화학 이진순 선생님은 짓궂은 면이 있었지요. 성적이 안 좋으면 친절하시게도 학생을 하나씩 호명하시면서 개인 접수를 발표하는 취미가 있으셨지요. 한번은 한 학생을 호명하여 일으켜 세우시고 별안간 큰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입 아래에 대시고 "당신은" 하시고 숨 한번 쉬시고 "공" 이요. 하셨지요. 전 학생이 간간 대소했지만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했지요. 무슨 이유였는지 학생때 공부들을 안해서 시험 때면 혼이 나곤 했지요. 그리고 당일치기를 흔히들 했습니다. 때로는 시험 전날 친구들과 명분은 시험준비를 한다고 여럿이서 한방에 모여 밤을 새 일도 있는데 흔히 공부는 못하고 밤새 같이 놀다가 새벽잠에 들었다가 아침에 늦게 깨어나 학교시간에 늦지 않게 같이 택시를 급히 타고 등교하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7. 가끔 의사가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해 본 일은 있으나 지금의 나로서 비슷한 취향이나 비슷한 자질을 타고 난다면 의사가 다시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아도 의사가 된 것은 크게 후회한 일도 없고 나름대로 내 생활을 즐겼고 적어도 미국에서는 의사에 대한 사회적 대우도 좋았다고 봅니다. 의사로 남한테서 구속도 안 받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신경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의대 3학년때 신경학 블록을 처음 들을 때부터 한결같았어요. 반면에 세부 전공을 정할 때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레지던트 초반에는 stroke intervention을 하고 싶었고, 중반 즈음부터는 epilepsy가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2년차 말 즈음 야간 당직을 서면서 운명같은 환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갑자기 전신에 힘이 없고 숨을 잘 쉬지 못하여 외부 병원에서 전원이 되어온 환자인데, 열심히 병력청취와 신체검진을 하고 보니, 교과서에서만 봤던 Lambert-Eaton Myasthenic Syndrome (LEMS)가 의심되는 거예요. 결국 제 진단이 맞았고, 그 환자는 Small cell lung cancer 치료를 받은 후 회복되었어요. 그 후로 neuromuscular 분야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 환자를 계기로 지금도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myasthenia gravis와 LEMS 같은 neuromuscular junction disorder 랍니다. 신경과 안에서도 소수만이 택하는 세부전공이어서, 항상 사람이 부족해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또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 5. 두 자녀가 각각 만8세, 3세인데, 그동안 부부가 동시에 레지던트/펠로우십 과정을 밟으며 육아는 어떻게 했는지요?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느끼는 장단점이 있다면요?

힘들었어요 (웃음). 처음에 레지던트를 시작하기 위해 미국에 올 때 첫 아이가 18개월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턴 부부가 수련을 받으며 키우기에는 스케줄 상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장모님께 석달 정도 아이를 맡겼고, 감사하게도 흔쾌히 도움을 주셨지요. 편했던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용감하게(?) 아이를 데려온 후에도 고민은 계속 되었지요. 인턴은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이 길고 풀 스케줄이 있어서 데이케어에 맡기기도 어려웠거든요. 다행히 와이프 동기의 남편이 변호사를 쉬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우리 딸도 같이 봐주겠다고 해서(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아내는 서투른 솜씨로 살림을 꾸려왔고 내가 보기에도 소꿉장난이었지요. 그래도 아내는 자기 의무라고 생각했는지 매 끼니마다 식사준비를 해서 병원에 올 때 주거나 뒤에 병원에 본인이 가지고 왔습니다. 본인의 말로는 밤을 새우며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주말 당직이 있으면 그 식사준비양이 더 많았지요. 지금 생각하건데 그 음식을 꼬박꼬박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이젠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돌이켜 보면 그 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3. 의과대학을 지망한 계기는 우리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6.25동란으로 신변의 안전이 위협했고 학교를 마치고 후에 군인 복무를 할 때도 의사는 주로 후방 근무를 해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어릴 때 기계에 관심이 많아서 피난중에도 이웃집 시계방 아저씨에게서 시계조립법을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온갖 시계를 분리하고 재조립해 시계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많이 즐겼지요. 그러다가 시계가 고장 나면 물론 혼이 날 것을 각오했지만...

의사가 되는 조건은 과학적 지식과 인간성의 두 조건이 필요하고 어쩌면 조금은 상반되는 경향도 보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소유한 의사도 환자의 아픔에 공명하고 그 고통을 알아주고 치료해주려는 마음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요즘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의사의 조건은 더욱 복잡해지니 일괄적으로 말 할 수는 없겠지요. 새로 나온 과학적 지식에 따른 시술의

발달과 team work이 많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서는 사회성 또한 필요한 조건이겠지요.

4. 나는 소아정신과 펠로우십을 마치고 Johns Hopkins Children Inpatient Psychiatric Service를 맡아서 일했고 전문분야라면 Inpatient의 Therapeutic Milieu에 대한 연구였지요. 외래에서 불가능한 아동 환자를 비교적 장기입원치료에 관련된 요소와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였지요. 그 후 Johns Hopkins 를 떠난 후로, 계속해서 병원근무나 혹은 아이들을 위한 장기 정신과치료 시설에서 일하다가 약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요즘은 같이 보험제도가 우리 의료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세상에서 이처럼 돈이 많이 드는 시설은 점차 자취를 감추는 경향이 있지요.

5.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를 지적해 낸다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명예, 업적, 치부,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 등등. 그러나 이제는 절대로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건강관리와 관계가 안 되는 것이 없지요. 몇 년 전이지만 저의 아내가 Intestinal Obstruction(장폐쇄)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진단이 Intestinal Intussusception(장중첩증)이라고 진단이 나왔지요. 수술을 꺼리는 가족들은 Non-operative Reduction을 희망했지요.

그러다가 하루 이를 지나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환자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입원한지 5일째에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지요. 여러가지 이유로 지병인 부정맥까지 악화되어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속수무책인 나는 조용히 병실에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8. 애들 양육에 귀감이 될만한 소재는 없습니다. 다만 어른들 간의 관계, 가정환경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 성격도 성장한다고 보지요. 분명히 표출되지 않았던 상호간의 감정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우리집 딸들은 나에 대한 반항의식은 강하지만 엄마한테는 안 그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더니 내가 아무리 표면적으로 감추려고해도 이 사회에서나의 한국적으로 잠재해 있는 권위적 행위가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간의 labor division이 불공평한 것을 애들이 인지하고 딸로서 여자로서 반발한다고 생각 되었지요. 우리 큰 딸이 시집을 아주 늦게 갔는데 혹시 내 과오가 없었나 걱정도 해 보았지요.

9. 건강유지에 대한 일과는 과거와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루 30분씩 Tread Mill을 타거나 때로는 대신 1-2마일 걷고, 일주일에 한두 번 골프를 치면 걷기는 것이 생활이고 요즘은 드물게 운동하려고 Gym에도 가지요. 은퇴 후 여행도 자주 가고 특히 사진에 취미를 갖고 여행, 또는 landscape(경치) 사진을 심각하게 해 볼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렵고 힘에 버거웁니다. 내 생각에 이제는 중용철학(中庸哲學)을 더욱 믿고 모든 것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음식, 운동, 의지 활동, 심지어는 약용량 까지도요.

편집자 주: 한성업 선배님은 23대 (1994-1995) 미주서울의대 동창회장을 역임하셨고 대담 내용 중의 이진순 생화학교수님은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20대 미주동창회장을 역임하신 이운순 (57) 선배님의 형님이시디.

오후의 단상들 -

살아있음의 즐거움

이수인 (63, 남가주)

Nothing new

샤트르의 소설 구토(la nausée)의 주인공 Rougentin의 일기는 nothing new로 시작된다. 은퇴인에게 제일 큰 어려움은 기대를 가지고 맞이한 하루가 nothing new로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 벤트에 쫓겨 하루를 지내던 때와는 다른 어떤 공백을 갑자기 눈앞에 대해야 된다. 거기에 뒤따르는 것은 정열도 논리도 없는 성취감을 찾기 어려운 생활의 정체성인가 보다.

시지프스가 반복해서 boulder를 산위로 끌어올리는 노역의 시절이 그래도 더 행복하게 보여 은퇴인은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른다. 큰 사건 또는 큰일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영광도 없지만 큰 실망도 없는 것이 노년이 가질 수 있는 오직 단 하나의 즐거움인가 보다. 인적이 드문 종착역에 서있는 기차처럼 온종일 아주 천천히 존재하면서 고독에 취해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으로 바둑을 두든가 햇볕을 쬐면서 명상이나 회상을 하든가 때때로 없이 먹을거리와 오수를 즐긴다. 텅 빈 공간에서 꾸겨진 자유를 누리는 셈이다. 마감날이 없기 때문에 책임기도 느리다. 도표가 없는 게으름과 빈둥거리기로 차버린 오후. 끈두박질된 시간표. 기다릴 테야 하는 여운이

없는 오후. 그래도 살아있음의 즐거움이라. 하늘, 바다, 미풍, 조그만 정...

장미의 찬가

장미는 여기 전국에서 산다 / 아침이면 장미화단으로 달려간다 / 화사한 페달 / 밤새 큰 녹갈색 새순 / 생명의 용솨음을 미소로 대화한다 / 그래서 새 젊음과 희망을 얻지 / 장미는 바람에 페달을 하나씩 아까운 듯 날린다 / 그 앞에 서서 internal eternity와 / 존재의 비밀을 읽고 / 장미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말이 없어 안타까워 한다 / 괴테는 morgenschoen 이라 불렀든가 / 누가 생동하는 섬세하고 향기찬 색상을 기록할 수 있으랴 / 장미의 찬가를 불러라 / 괴테의 들장미 / 피아프의 장미빛 인생 / 가슴 뛰게 하는 아름다움의 화신 / 크레오파트라는 앤토니의 무덤을 장미꽃잎으로 덮었다

노년의 위기

까뮤의 소설 La peste에서 많은 사람들이 페스트로 죽어가고 자신들의 타운에 exile 되버린 상황에서 Oran 시민들의 반응은 과장되고 폐쇄된 egotism이다. Solitude에 묻혀버린 egoist. 그들은 피로하고 불안하다. 외부와 단절한다. 감수성을 더 잃는다. 탕진, 그것도 혼자만 즐기는 탕진이다. 비싼 술을 사서 혼자 마신다. 불안한 사람들은 무언가 확실한 것이 필요하다. 돈을 세본다. 신에게 무릎을 꿇고 매달려본다. 그냥 존재함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 평범한 참여하고 교통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죽음의 환상이 드러나는 노년의 반응도 비슷한가보다. 까뮤는 이런 상황의 해결책을 recommencer (다시 시작한다)와 solidarite

(같이 일한다)로 표현한다. 이 말들은 전 소설을 통해서 여러번 반복된다.

Solidarite는 인간끼리의 친화적인 정을 낳는다.

저주의 시선 하에서 자신을 증오하던 황톳길의 시인 한하운도 문둥이끼리 만나면서(solidarite) 삶을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용기와 희망을 얻는다. 그는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

"이즈음 문둥이 삶도 아름답다

모두가 꽃같이 아름답고

... 꽃같이 서러워라"

생명에 대한 사랑의 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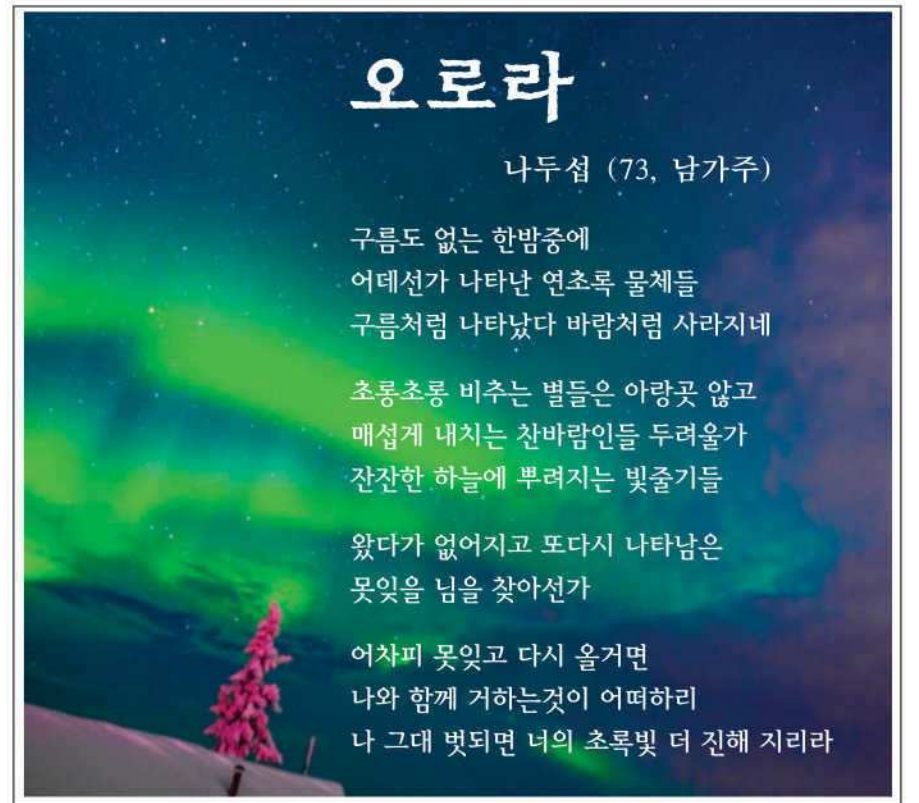
한 오후의 메랑꼬리

침묵은 사하라 사막에서 오네 / 이웃에서 / 친구에게서 / 원초적 고요인가 / 의도된 정적인가 / 아무도 감추려하지 않는 무심 / 먼저 내민 손조차 / 못 잡아 / 돌아가는 지쳐 버린 사람들 몽파르나스 가난한 시인들의 어울림의 단아함 / 떠난 지 오래된 오후 / 정적 / 침묵 / 어딘가 아주 멀리서 들리는 / 사랑이 외치는 소리 외엔

우리 여차피 혼자인데

그래도 살아있음의 즐거움이라

장미꽃 즐거움



오로라

나두섭 (73, 남가주)

구름도 없는 한밤중에

어데선가 나타난 연초록 물체들

구름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네

초롱초롱 비추는 별들은 아랑곳 않고

매섭게 내치는 찬바람인들 두려울가

잔잔한 하늘에 뿌려지는 빛줄기들

왔다가 없어지고 또다시 나타남은

못잊을 님을 찾아선가

어차피 못잊고 다시 올거면

나와 함께 거하는것이 어떠하리

나 그대 벗되면 너의 초록빛 더 진해 지리라

<전면에서 계속> 고비를 넘길 수 있었지요. 첫째를 키우기가 조금 수월해지니 아이러니컬 하게도 둘째 생각이 나는거예요. 둘째(아들)는 펠로우를 하던 시기에 태어났는데, 장인어른께서 안식년을 이용하여 장모님과 같이 1년여 동안 미국에 머무르시며 많이 도와주셨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어떻게 했나 싶기도 하지만, 나름 순간순간이 너무 좋은 추억이기도 하네요. 미국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수월하다고들 말씀하시는데,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처럼 부부가 모두 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도움이 절실할 때가 많답니다. 미국 친구들도 아기 낳을 때 쯤 되면 다들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육아가 힘든 건 참 만국 공통인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뽀니뽀니해도 아이들을 이만큼 무사히 키운 건 아내 덕분이지요. 소아과와 소아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하고, 계획을 워낙 철저하게 세우는 성격이어서 정신 없이 바쁜 일상에서도 아이들 스케줄을 핑크 내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6. 학창 시절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의대 다니던 추억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특별히 애착이 있던 캠퍼스 내나 해외 동 인근 장소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추억이 너무 많지요. 특히 동아리와 연관된 기억이 많아요. 학생 때 욕심 많게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의대 오케스트라(음악반)와 테니스 반을 동시에 했어요. 양쪽 동아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바쁜 일정에도 하나를 그만 둘 수가 없었어요. 덕분에 동아리 활동 시즌이 되면 공부도 뒷전이고 행사와 뒤풀이를 다니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겨울방학이면 음악반 봄 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한 음악 캠프를 갔는데, 3박 4일 동안 낮에는 실 새 없이 악기 연습을 하고, 밤에는 잠도 아까워 하며 단원들과 친목을 돈독히 하다 보면 사람이 꽤 너털너털 해지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곧바로 테니스 합숙 캠프에 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뻐

젊었었구나 합니다. 대학로에서는 아임호프(I'm HOF)라는 맥주집에 추억이 많습니다. 동아리 연습 뒤풀이로 참새 방앗간 드나들듯 갔었는데, 매번 호기롭게 들어갔다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오곤 했었어요. 그래도 그 곳에서 동아리 후배중 하나였던 처제로부터 언니가 마침 저와 같은 시기에 뉴욕에서 클러킹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만났던 것이 결국 지금 인연으로 이어졌으니, 특별한 추억의 장소로 간직 해야겠지요?

7. '너털너털 해진다'는 표현을 들으니 뒷풀이가 파하고 맥주집을 나설 무렵 행복감과 피로감으로 점철되었던 기분이 되살아나면서 동지들, 선후배들과 뜨겁게 우정을 나누던 그 때로 시간여행하고 싶습니다. 학생 때 의대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를 연주했었는데, 비올라를 다시 만질 기회가 있었나요? 취미 활동 할 시간이 있나요?

수련을 받는 동안에는 악기 생각이 종종 났지만, 다시 연습할 엄두는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학생 때부터 쓰던 비올라를 미국에 가져와서 가끔 첫째 딸에게 "반짝 반짝 작은별" 같은 쉬운 곡들을 들려주곤 했어요. 어느덧 수련도 마치고, 딸이 이제는 제법 커서 바이올린을 배우게 하려고 선생님을 찾았는데 무척 괜찮은 분을 찾은 거예요. 처음에는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옆에서만 보다가 욕심이 생겨서 요즘은 저도 다시 비올라를 배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같이 신경근질환을 전공하는 일본인 동료(첼로)를 포함한 아마추어 넷이서 켈렛(현악사중주) 연주를 했는데, 그 곡이 우연하게도 제가 음악반에서 처음 연주했던 모차르트 켈렛 곡이었답니다. 비올라는 여러모로 저희 가족에게 의미있는 악기인데, 아내 역시 세브란스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 파트장을 했답니다. 비올라 연주자는 서로를 알아본달까요 (웃음).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가며

작은 앙상블을 만들어 가는게 제 작은 꿈입니다.

8. 동창회에서 비올라 연주를 들려주실 기회가 있다면 좋겠네요. 한국 방송은 즐겨 보시나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어떻게 연락하며 지내시나요? 자주 방문하시는지요?

주로 아내가 한국 요리관련 방송을 볼 때 옆에서 많이 보는 편이에요. 보통 인터넷 스티리밍 방송을 보는데, 핸드폰으로 보는걸 제가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보면 귀찮아 하곤 합니다. 가끔 추억을 자극하는 드라마가 있으면 같이 챙겨서 보기도 하는데, 근래에 본 프로그램 중에는 "고백부부"가 생각이 나네요. 현실에 지쳐서 서로 상처주고, 헤어질 생각을 하던 젊은 부부가 시간여행으로 사귀기 전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젊은 날의 애뜻한 감정, 무심하게 지나쳤던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며 힘든 현실을 극복한다는 스토리예요. 바쁘게 살다가도 문득문득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잘 갈무리해서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버팀목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는 페이스 타임을 많이 해요. 사실 서울에 있어도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과 더 자주 통화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하.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근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고 있기는 하죠. 올 여름에는 큰 딸이 혼자서 처음으로 한국에 할머니 댁에 한 달간 머무르다가 왔어요. 엄마 아빠 없이도 스스로 할 일을 챙겨서 하는 모습을 보니 다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름방학이 길다보니 앞으로 자주 한국에 가지 않을까 싶네요.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에게는 사실 자주 연락을 못하는 편이기는 한데도 근처에 오면 기꺼이 방문해 주는 친구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 뿐이에요.

9. 미국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그리고 요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인가요?

신시내티에서 처음 수련을 시작할 때에는 좀 정신이 없었는데, 사실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수련 중에는 저희가 바쁘다는 핑계로, 졸업 후에는 직장 때문에 이사도 자주 하면서 큰 아이가 학교도 여러 번 옮기고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못 써줬는데, 작년에 아이가 학교에서도 집에서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반성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아이와 함께 성숙해 진 것 같아요.

요즘 즐거운 시간은 역시 운동하는 시간이지요. 원래 테니스를 좋아하지만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정현 선수 덕분에 요즘 다시 테니스에 푹 빠졌답니다. 미주 동창회 모임에서 테니스 경기를 한다면 꼭 참가 하고 싶은데, 그런 행사가 있다면 좋겠네요!

10. 앞으로의 소망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40대에는 어떤 삶을 그리는지요? 아울러 미국에서 수련기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재 저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처럼 주로 환자를 보는 의사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랜트를 쓰는 연구 중심의 의사가 될 것인지 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정착할 곳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버밍햄 같은 작은 대학 중심의 도시에 사는 것도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이나 교육 환경에서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선택 또한 행복한 고민입니다. 어느 선택이나 최선을 위한 노력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사는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이런 선택지가 많고,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어서 한국에서처럼 모두가 하나의 좁은 문을 향해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박은경 편집위원)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피워내는 우리 동문들의 향기에 늘 감탄합니다.

제 22회 졸업 50주년 행사 후기



# 아름다운 인연, 영원한 우정의 잔치

노영일(68, 시카고)



졸업 50주년 행사의 참가 여부를 결정할 시기 한반도의 정세는 험악하였다.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고 연일 대륙간 탄도탄을 쏘아 올리며 위협을 했다. 실지로 하와이에서는 담당관의 실수로 공습경보까지 내려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는 줄 알고 우왕좌왕 피할 곳을 찾으며 가족들과 저승에서 만나자는 작별인사까지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용기를 지나 만용에 가까운 듯 했다. 꼭 가고는 싶었으나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좀 더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고 마지막 마감일까지 확답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참가를 포기한 동문들이 많이 있었을 줄로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주 동기 동문 17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했다. 김경인, 김명원, 김희주, 노영일, 송창호, 서윤석, 신규호, 신용계, 신홍식, 안세현, 유우영, 윤병인, 이건일, 이병순, 임공세, 차재철, 최철 등이다.

고국 동기들은 강조웅, 강조자, 김명석, 김상우, 김승일, 김윤, 김태기, 문난모, 신순철, 신애라, 박용현, 오찬규, 이석현, 이영, 이호성, 이홍규, 임운명, 전병두, 조승열, 한덕호, 등 20명이 참석했다. 작고하신 동문들도 14명이나 된다.

우리가 모교의 품을 떠난 지도 반세기가 지났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50년이면 다섯 번은 변했을 것이다. 산천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말까지도 변하였다. 민동산은 푸른 산이 되었고, 양철 슬라이드 지붕은 하늘을 찌를 듯 한 고층건물로 바뀌었다. 무슨 뜻인지 모를 단어들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는 미국에서 온 동포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린다. 우리가 쓰는 한국말은 50년전 표준말이다. 우리가 평생 지켜온 이념과 신념도 많이 바뀌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도 늘 고국의 놀라운 발전에 자부심을 가졌다. 고국이 잘 되어야 미국에 사는 우리도 위상이 올라가고 대우도 받게 되는 것이다. 거리마다 현대, 기아 차들이 달리고, 삼성폰, 삼성 컴퓨터, LG 전자제품들은 미국인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여자골퍼는 LPGA를 휩쓸고, 방탄소년단은 틴에이지저들의 우상이 되었다.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고국에서 가장 좋은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세계 어디를 가나 늘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 자부심에 비례하여 모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국적은 바뀌어도 모교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마치 출가한 여인이 친정집을 다니러 오듯 먼 길을 기쁜 마음으로 달려온 것이다.

10월 9일, 전야제처럼 골프를 즐기는 동문들이 추천 라데나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며 오랜만의 만남을 위



밍업 했다. 마침 한글날 휴일이라 티타임 잡기도 힘들텐데 박용현 회장 덕으로 행운의 골프를 칠 수 있었다. 아침 일찍 깨서 춘천으로 달려다. 죽죽 뻗은 고속도로와 주위의 풍경, 휴게시설의 시설 등은 세계 일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장 친구들이라 VIP 대우를 하는지 직원들이 가는 곳마다 허리 굽혀 인사하는데 이런 것에 익숙지 못한 우리들은 도리어 거북하게 까지 느껴졌다. 이른 아침 식사도 잘 차려진 한식으로, 토스트 한 조각으로 때우는 우리의 습관에는 과분하였다. 골프 카트는 희한하게 생겨 뒤에 골프 가방을 네 개를 나란히 싣고, 앞에 네 명의 골퍼들이 앉게 되어 있었다. 캐디가 직접 운전을 하거나 멀리서 리모트 컨트롤로 희한하게 정확히 카트를 움직인다. 미국에서는 이런 카트를 본적이 없다. 그래서 미국 촌놈이라 하는 것인가. 캐디들은 젊은 아가씨들인데 거리를 아리켜 주는 것은 물론 치는 요령과 약간의 코치까지 해준다. 프로 골퍼의 꿈을 접은 아가씨들이 캐디를 한다고 한다. 한 여성팀은 골프공이 분명 벅커에 들어갔는데 가보니 감쪽같이 없어져서 이상하다 했는데 다음 사람이 오다보니 여우새끼가 날름 골프공을 물고 숲으

로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한참 웃었다. 풀은 금잔디여서 이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는 좀 어려움을 느꼈으나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느라 개의할 여유조차 없었다. 골프가 끝나고 목욕을 하고 또 거한 점심 식사까지 대접 받았다. 아마도 로마 귀족들이 이와 비슷하게 하루를 즐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다. 돌아오는 길의 교통정체는 시카고를 뺀 정도였다.

10월 10일, 모교 본관 현관에서 모였

보존해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데 너무나 빠른 발전의 후유증이 아닌가 하여 아쉬웠다. 구내 가든뷰 식당에서 창경원을 내려다보며 점심을 먹었다.

식사 후 남산 타워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이곳이 내가 나고 살던 서울인가. 마치 외국에 온 느낌이다. 촘촘히 들어선 고층건물들, 특히 강남은 마치 신기루를 보는 듯 했다. 호텔에서 잠시 쉬고 롯데호텔 만찬장으로 향했다.

각테일을 들며 화기에애한 분위기에 서 환담을 나눴다. 프로그램에 따라 이석현의 사회로 박용현 명예회장의 환영사, 신용계 미주 회장의 인사말, 김상우 회장의 업무보고, 문란모 재무의 결산보고 등이 있었다. 강조웅, 윤병인, 신애라의 선도로 건배를 들었다. 식사 후 조승열의 22회 동문들의 역사, 노영일의 미주 동창 경험담, 현황, 업적, 친목 등 슬라이드 쇼가 있었다. 음악대학 후배들의 사중창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단체 사진을 찍고, 시간제한 때문에 아쉬운 마음으로 모임을 끝내고 다음날 단체 일본 여행을 준비 하여야 했다.

10월 11일, 인천 제2 터미널에 모여 KAL 비행기를 타고 일본 나고야 국제공항으로 갔다. 인천공항은 초현대식인데 이에 비해 나고야 공항은 초라해 보였다. 버스 두 대에 나누어 타고 나고야 시내로 들어갔다. 본래 계획은 일본의 3대 명성인 나고야 성을 관광할 예정이었으나 천수각 복원작업으로 입장 불가하다 하여 취소되었다.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나고야 TV 타워, 오아시스 21 옥상공원, 사카에 거리 등을 둘러보고 일본 3대 신궁의 하나인 아사다 신궁으로 갔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하여 등불 밑에서 낭만적(?)인 관광을 하였다.

10월 12일, 호텔에서 조식 후 시라카와(白川)로 갔다. 이곳에는 일본 전통 가옥인 합장촌(合掌村) 마을이 있다. 지붕모양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한 것 같이 보인다고 합장촌이라 한다. 초가지붕의 두께가 약 1미터나 되는데 십년에 한 번씩 갈아 주어야 된다고 한다. 이 지방은 산간지방으로 겨울에 눈이 엄청 오는데, 눈이 쌓이지 않게 하기위하여 지붕을 급경사로 만든다. 4층집이 많은데 마룻바닥에 틈을 내어 온기가 위층으로 <다음면에 계속>

다. 반가운 오랜만의 해후였다. 서로 손을 잡고 얼싸 안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본건물의 일부만 남아있고 생화학교실, 기초교실, 해부학실험실은 자취도 안 보인다. 우리가 늘 모이고 가끔 시험도 치던 대강당도 모두 새로 꾸며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다. 식수에 따라 국민의례에 이어 신찬수 학장, 서창성 병원장, 홍정용 동창회장, 김상우 동기회장, 신용계 미주 동기회장, 등의 인사말이 있었다. 22회 박용현 명예회장이 의대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신찬수 학장의 감사장 전달했다. 신용계 미주 동기회장이 동창회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홍정용 동창회장의 감사장 및 기념품 증정이 있었다. 이어 모교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축하 기념 단체사진을 찍는 것으로 기념식을 끝냈다.

모교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투어를 했다. 교육관 지식영센터, 임상수기센터 등 새로운 시설들을 돌아보았다. 합촌원도 없어지고 건물들이 뿔뿔이 들어섰다. 시계탑은 보존되었으나, 내과 교실자리는 박물관이 되었고 우리가 청춘을 불사르던 임상강의실, 외래진료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구미의 명문대학들은 몇 십 년 후에 돌아가도 옛 건물들을

# 인사도 없이

정유석 (64, 북가주)

“테스”의 작가로 유명한 토머스 하디(Thomas Hardy, 1840-1928)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활약한 영국의 소설가며 시인이다. 그는 작품에서 자신 속에서 터져 나오는 열정과 주위에서 내리 누르는 압력사이에 놓인 주인공들의 고민을 즐겨 다뤘다.



하디는 도체스터 동쪽에 있는 스티븐스퍼드 교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석공으로 노동자였지만 어머니는 책을 많이 읽은 야심있는 지식인이어서 스스로 아들을 공부시켰다. 그는 인생의 초반을 건축가로 성공해서 대영제국 건축가협회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문단 진출은 시로 시작되었다. 시는 “내 첫사랑”이라고 했다. 그의 종교적 사상은 항상 심령주의와 불가지론 사이를 넘나들었다. 이들은 그의 초기 시작에 자주 반영되었다. 하디가 생각하고 또 작품에 반영시킨 심령은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떤 굳건한 의지가 아니라 번덕과 무관심 속에서 행한다고 보았다. 그는 유령이나 심령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 의식과 교회 예배에는 강한 애착과 경외심을 갖고 있었다.

1867년 처음으로 소설에 손을 대었지만 출판사를 구할 수 없었다. 그는 원고를 태워버렸다. 친구들의 끊임없는 권고로 인해 책 두 권 ‘필사적인 치료’와 ‘그린우드 나무 밑에서’를 출

간했는데 그 다음 번 책 ‘한 쌍의 푸른 눈’(1873)에서야 처음으로 작가의 이름을 밝혔다.

1878년 런던에서부터 시골로 돌아와서 ‘고향사람의 귀환’을 썼다. 1891년에 발표한 ‘테스’에서는 정절을 잃은 여성을 적극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상당한 비판을 받았고 처음에는 출판조차 거절되었다. 그는 이 작품에 부제로 ‘순수한 여인/성실한 기록’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더더욱 당시 빅토리안 중류 지식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895년에 발표한 ‘애매한 주드’(Jude the Obscure)는 아주 노골적인 섹스 묘사로 인해 강한 비판을 당했는데 당시 일부 사람들은 이 작품을 Jude the Obscene(음란한 주드라고 할까)이라고 낮게 표현한 별명으로 불렀다. 또 이 책에서 결혼이란 전통적이나 낡은 관습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어떤 책에서는 이 소설을 브라운 백에 넣어 판매했고 웨이크필드 대주교는 이 책을 태워버렸다고 유명해졌다. 이 두 책으로 인해 사회에서 크게 지탄을 받은 후로 그는 소설에서 손을 떼고 시작에 전념했다.

그는 1870년 엠마 기포드란 고향 처녀를 만나 4년 후에 결혼했다. 그들의 생활이 항상 평탄치만은 않았다. 특히 그녀가 ‘애매한 주드’는 남편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밝히면서 그들 사이는 틀어졌었다. 그래도 그녀가 1912년 사망하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는 엠마와 연관되었던 장소, 서로 사귀었던 곳 등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연작 시 ‘1912-13년의 시들’로 표현했다. 그는 1914년 자기보다 40년이나 어린 여인 플로렌스와 결혼했다. 그는 그녀를 1905년에 비서로 채용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뜬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힘이 들어 계속 시를 지으면서 상한 심령을 극복하려고 했다.

하디는 1927년 녹막염에 걸렸고 다음해에 이로 인해 사망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마지막 시를 엠마에게 바쳤다.

손님이나 친구들, 친척들이 물러갔을 때 / 안에 아직 그대가 있을 듯하여 / 급히 그대 찾아 들어가 보면 / 한 마디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것 / 그것은 그대의 버릇이었소.

또 어디라고 가령 시내라도 / 가려고 그대가 마음을 먹으면 / 어느새 그대는 가버렸소. 내 미처 그럴 줄 모르고 / 짐 꾸리는 것을 보기도 전에.

그래서 그대가 그 모양으로 / 어느새 영영 사라져 버렸구려. / 그대 생각엔 아마도 / 옛날처럼 이러한 가 보오. / ‘작별 인사’는 해서 무얼 해요.

(인사도 없이 전문)

장례식은 1928년 1월 16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렸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시신은 스티븐스퍼드에 묻히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그의 유언 집행인은 이 사원에 있는 ‘시인 코너’를 주장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실에는 대영제국의 이름을 날린 대 시인들을 묻는 코너가 있었다. 타협한 결과 그의 심장을 도려내어 스티븐스퍼드에 엠마의 무덤 옆에 묻히고 나머지 부분은 화장되어 사원에 있는 시인 코너에 안치되었다.

# 우리가 걸어온 길

-50주년 졸업행사에서

서윤석 (68, 버지니아)

함춘원 단풍이 일렁인다  
시계탑 분수대가 솟구친다  
황소들의 발자국 소리에  
독수리들의 날갯짓 소리에  
높은 구름이 춤을 춘다

담벼락 뒤에서 시신屍身을 내어준  
당신들의 영혼에 감사한다  
흰 가운을 주신 상아탑에 감사한다  
가슴을 흔들어대는  
우리의 발자국 소리

한숨과 눈물로 슬퍼한다  
떠나간 사람을 슬퍼한다  
먼저 가버린 정다운 벗들을 슬퍼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같이 걸어간 그 옛날 발자국 소리

조국의 산하山河가 흔들린다  
풍진 세월 살아 남아  
승리의 등불로 돌아온  
오디세우스Odysseus 장군 보다 깨끗한  
훈장이 가슴에서 빛나는  
우리의 발자국 소리

살을 에이는 겨울이 되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외로움이 닥친다 해도  
떨리는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영원한 발자국 소리



뒷줄: 안세현 강조웅 김태기 신순철 안경환  
앞줄: 심영수 신규호 김희주 신용계 서윤석 안병일  
68년졸업 도서위원: 조승렬 김경인



〈전면에서 계속〉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맨 아래 층에서 이로리 라는 화력에 불을 때면 4층 까지 열기가 올라간다고 한다. 굴뚝도 없고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많다는데 내가 보기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더 큰 문제일것 같았다. 여기서 우나츠키 역(宇奈月驛)으로 이동하여 쿠로베(黒部) 협곡도루코 열차를 탔다. 본래 댐건설을 위한 자재운반용으로 만든 작은 화물

차 인데 지금은 개조하여 관광열차로 사용하고 있다. 지붕이 있는 열차와 오픈카가 반반씩 있다. 쿠로베 협곡은 일본 최대의 협곡으로 46개의 터널과 27개의 다리를 지나며 절경을 감상한다. 만년설 이라고 코딱지만한 빙하도 보았다. 저녁에 다테야마 고쿠사이(立山國際) 호텔에 여장을 풀고 온천욕을 즐긴 후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 후 서윤석이 졸업 50주년 기념



자작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낭독했다. 그리고 재담과 재치로 넘치는 이석현의 사회로 각자 한마디씩 소감, 덕담, 인생관등 즉흥 연설을 했다. 임윤명은 “본의 아니게 살아온 삶”을 유머러스하게 이야기 했다. 김경인은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고, 김명원은 동기들의 초상화를 그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상준은 노년기 운동의 중요성을 말했다고, 신홍식, 안세현 장로님들은 인생의 종점에 다다른 우리들이 내세에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고도 했다. 유일하게 남녀 혼탕을 다녀온 유우영은 감격하여 말도 잘 못했고, 그 부인은 소감을 물으니 그저 남편의 뜻을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10월 13일, 조식후 다테야마(立山)역으로 향했다. 여기서 소위 일본의 알프스라는 알펜루트(Alpine Route)를 관광했다. 케이블카로 2450m 다테야마(立山)까지 끌려 올라가고, 트롤리를

타고 다테야마 터널을 지나, 로프웨이에 매달려 쿠로베 댐까지 가서 발전소를 구경했다. 다시 트롤리버스를 타고 오오기사와(扇澤)까지 가며 단풍구경을 하였다. 저녁에 호다카소 상계즈(穂高莊山月) 호텔에 여장을 풀고 온천욕을 했다. 저녁식사 후 회장 인사말, 재무보고 등 간단한 순서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었다. 다음 55주년 행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전 행사 기간 동안 날씨가 매일 좋았다. 이번 행사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애를 써준 박용현, 김상우, 이석현, 문란모, 임운명 동문들께 감사사를 전한다.

10월 14일, 조식후 나고야 공항으로 이동, 항공로로 인천 공항에 도착하여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서울의대 22회 동기라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연을 잊지말고 끈끈한 우정을 영원히 간직할 것을 무언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섬섬한 마음으로 헤어졌다.





# 평균 수명 平均 壽命

임 낙 중 (59, 메릴랜드)

1945년 한국은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되었고 대한민국독립만세의 환호성과 더불어 한국 독립운동이 한국 전역에서 재연되었다. 그때 선친(先親)은 대전에서 치과를 개업하고 있었고 47세의 젊은 나이였다. 선친은 한국의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고 송진백 씨와 조덕윤 씨 등 동참했던 친구 분들이 기억에 남는다. 그 당시 사재(私財)를 털어 밤낮으로 열성을 내어 뛰어다니던 분들이 거의 모두 50대에 세상을 뒀으니 지금 보면 단명(短命)이지만 당시 평균수명이 50세 미만이었으니 평균수명은 살고 가신 셈이다. Kidney Dialysis도 없었고 충추염 제거수술이 고작이었던 시대였다. 단 백년전이 못되지만 어머니는 점을 치러 다니기를 좋아하셨고 나는 덩달아 따라다녔는데 점친 결과는 붓글씨로 써서 본인에게 주었다. 흔히 내 점괘를 보면 수명은 60세 내지 대개는 65세였는데 당시에는 그 정도 수명이면 단명이 아니었으므로 만족했다. 더 살고도 싶었지만 그때는 내 나이가 어린 때라 큰 불만이 없었고 항의해본적도 없었다. 꿈에도 내가 팔십대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 요즘 같으면 수명이 65세라면 몹시 불쾌하고 그 불만을 입에 담았을 것이다. 당시에는 70세가 넘는다는 점괘는 기억에 없었는데 70세가 넘는 노인은 대개 식물인간이 된 분들이 많았고 노망에 걸려서 골방에 갇힌 분들이 많았으며 그런 신세가 되니 죽는 게 낫다고 하는 어린 나이에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수명 70세면 군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금년에 내가 83세가 됐는데 내가 이처럼 오래 산 것은 의학발전의 덕이 크다. 전염병은 예방의학의 공로로 해결되었고 전립선 질환은 비뇨기과의 발달의 덕을 보았으며 대장암도 현대의학의 덕분에 예후가 좋아졌으니 내 나이 60세 이후에는 현대 의학의 힘을 입은바 크다. 아마 내 수명 65세가 올바른 수명인지 모르겠다. (의학발전으로 더 산 수명을 빼면)

한국에 냉동시설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는 한국에만 다니러 가면 설사 북통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한국을 다녀오니 이 또한 한국의 문명발전 덕이다. 내 두 눈의 백내장 수술 덕분에 아직도 차를 몰고 다니니 이 또한 의학발전의 덕이다. 옛날에는 백내장으로 시력장애가 오면 잘 넘어지고 골절은 부상을 입으며 결국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평균 수명이 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20여년 전에 직장암 수술을 받고 Colostomy Bag을 달고 다니지만 아직 살아남은 것은 현대의학의 덕이다. 한마디로 60세 이후의 내 생애는 현대 의학의 덕을 입은 인생이다. 2017년 의학잡지 Lancet에 다음 기사가 실렸다. 현 추세대로 간다면 2030년에 태어나는 한국여성은 53%가 90세를 넘기는데 2010년 태어난 여성보다 6.6세를 더 산다고 WHO와 영국 Imperial College of London 두 기관에 공동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1960년대와 2014년대를 비교하면 여성 평균수명이 19년이 늘었다고 한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이유는 남한에서는 경제와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여성은 대부분 금연을 하며 Body Mass Index가 다른 나라보다 적다는 것이다. 나는 제시한 이 이유에 동감하는 바다.

실은 호주, 프랑스, 일본, 스페인 모두 연장되지만 특히 남한이 세계 최

장수국이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조사에 참여한 35개국에서 여성 대 남성의 평균수명의 Gap이 멕시코 이외에는 모두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미국의 Health Care의 불평등 때문에 평균수명이 뒤지는 현재 추세가 계속되며 미국은 교통사고, Heart Diseases, Violent Crime, Obesity 등 평균수명 연장에 장애가 되는 여건이 너무 많다고 한다. 한마디로 너무 똥똥하고 사고 등 살인이 많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Trump의 America First라는 정책은 당연하다고 나는 본다. 반대의견도 물론 있다. 현재 남한에서 의사를 방문하는 빈도는 연 16회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세계에서 제일 높다. 미국에서 종류를 넘는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일 년에 의사를 5-6회 만나니 한국인이 의사를 찾는 빈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한국의 보험제도 덕분이라고 하는데 공짜면 양껏물도 먹는다는 속담대로 한국에서 의사를 보는 것이 별로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 제도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의료제도는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고 진료자체의 질이 저하된 경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인의 의료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예를 들어 한국인의 위내시경검사에 의한 위암 조기 발견으로 5년 생존율이 65%나 되니 미국의 위암 생존율 28%에 비교하면 대단한 발전이다. 세계적으로 위암 5년 생존율이 10%에 비하면 현격히 높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1977년 박정희 정권 때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로 시작했다. 군사적 독재가 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제도이다. 말쑥꾸러기 의사들을 제압한 것이다. 1967년 미국으로 이민 온 나는 내가 사는 동안에는 한국의 의료제도가 현재처럼 발전할 줄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1957년 서병설 교수에게서 기생충 강의를 받았다.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으면 민물고기가 간지스토마 숙주임으로 Liver Distoma에 걸린다는 것을 배웠다. Hb이 4까지 내려간 간지스토마 환자를 직접 보았고 그 환자 전신이 부종으로 부어 있었다. 간지스토마는 민물 가재 등이 숙주로서 한국 사람이 즐기는 계장을 날로 먹으면 Paragonimus Westermani의 유충이 횡경막을 뚫고 폐나 뇌로 가서 인체를 어떻게 해치는지 배웠고 그 후로는 평생 민물고기를 날로는 입에 대지 않는 습관이 그때 몸에 익었다.

이야기가 옆으로 흘렀지만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진다는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했겠지만 서 교수의 기생충 강의도 한몫했다. 그 중에 한가지 기적을 이룬 고 박정희 대통령의 공도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씨 등이 그의 공을 깎아내리려고 애를 썼지만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올 때만해도 동양에서 잘 산다고 하는 나라는 일본과 필리핀 정도였으니 지금 우리 한국이 필리핀을 멀리 밀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노력이었고 반대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절로 된 것은 아니다. 그 공을 나는 박대통령에게 돌린다. 그리고 일찍이 한국 젊은이들이 미국에 와서 과학과 기술을 습득해서 한국에 옮기도록 도와준 미국에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우리 선배들이 미국의 선진과학과 의학을 조국에 심지 않았으면 한국의 의료제도는 오늘날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세계적인 computer chip을 생산해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키워 준 은혜를 잊는 민족이나 국가는 결

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알고 과학과 기술을 전수했고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것을 한국이 잊어서는 안되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을 이용만 해서도 안된다. 한국 민족이 머리가 우수하여 잘사는 것은 아닌데 이조 오백년간 서로 싸운 다투는 끝에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머리가 한국민족과 막상 막하로 좋기로 알려진 유대민족도 수천년간 온갖 수모를 당한 것을 우리는 안다. 한국민족이 똑똑해지려면 역사를 빠르게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한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

과이고 그 민족의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은 여러 요인 중에 극히 일부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한국이 일본의 쇠사슬에서 해방된 후 6.25 동란을 겪었다. 요즘은 6.25을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니 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친 북한주의자가 득세를 한 모양인데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않은 나머지도 통탄할 일이다. 6.25 동란이 북에서 밀고나온 남침인 것을 나는 직접 체험했다. 그것은 여하튼 한강의 기적일 이루는 결과로 되었다. 2030년에는 남한 여성 평균수명이 세계 제일로 뛰어오른다 하니 축복하고 싶다. 그러나 2030년이 되면 평균수명이 최장이라고 해서 제일 잘 살고 행복한 민족이 될까 묻고 싶다. 히말라야(Himalaya) 산맥에 위치한 부탄(Bhutan)국민이 여론조사에서 제일 행복한 국민이라고 해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17세기에 독립한 불교신도가 75%, 힌두교도가 22%인 나라인데 인구는 80만의 작은 나라이고 면적이 만 오천 평방키로미터이니 한국땅의 몇분의 일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이다. 행복지수는 본인이 잘 산다는 주관적 척도이기 때문에 부탄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있다고 믿는 행복감은 객관적인 것이 물론 아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Noko 국민의 행복감을 써 책을 출판한 것을 보았는데 이 행복감과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세상과 격리된 국민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지 모르니 마치 봉사가 코끼리 다리를 만지기와 같다.

욕심을 줄이면 만족한다는 불교 교리가 국민정서에 팽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GDP는 Noko가 2014년 1,800불이고 Bhutan이 2016년 2,800불이니 경제적으로 못살기는 대동소이(大同小異) 한데 여하튼 행복지수란 인간이 얼마를 문화생활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세계 선진국의 추세는 만혼(晩婚)이며 내 주위에는 사십 여세가 넘는 미혼자들이 늘고 있고 동시에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하여 한국 산아율이 커피당 1.2 내지 1.1을 감돌고 있으며 산아율이 세계에서 최하위이다. 이대로 가면 한민족이地球上에서 사라진다고 한다. 이미 한국에는 수십만 명의 동남아처녀를 수입했고 남자 모슬렘 노동자도 수십만이 일하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에 몇 개 개발국가는 산아율이 커피당 7이 넘으니 신(神)은 공평하다고 웃을 수밖에 없다. 일곱은 너무 많다.

한국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DNA 검사 결과는 이미 나와 있지만 외국에서 수입해서 결혼하는 추세가 계속되면 역사상 대륙과 일본의 피가

## A Freight Train of Time

Young C. Shin ('59, Maryland)

Time is a freight train that runs in one direction that does never return

It picks up everything and carries away anything and continues its fleeting

Whether it is fallen leaves or abandoned cargoes or useless, empty packages

The train picks up indiscriminately any person, diseased or elderly and never returns; mercilessly

섞인 것과 비교가 되지않는 혼혈민족(混血民族)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李朝때 부터 중국에 조공을 드리는 나라로 격하되었고 중국을 종주국으로 받드는 나라가 되었으며 사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신흥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나라를 잃었고 일본에 반항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先烈)도 있었으며 민족의 반이 상민(常民)으로 와중에 민족의 일부는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다. 특히 관동군의 앞잡이로 중국인들을 괴롭힌 역사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 한국은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어 역사적으로 친일, 친청, 친로파로 갈리어 민족간에 서로 싸웠고 지금도 그 역사는 끝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 민족은 친중국파와 친미국파로 나눌 수 있으며 친미파도 친일파와 비친일파로 나눌 수 있다.

세계는 얼마 전까지 국제간에 hegemony를 미국이 잡고 있었는데 Henry Kissinger 덕으로 급성장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여 그 hegemony를 잡으려 하니 세계는 양분되어 그 치열한 전투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미국정책의 과오라고 나는 본다. 지금의 한국정세로는 반미 반일 세력이 우세해지고 미국보다는 중국과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 가까워지고 있으며 한국은 친중국파의 승리, 다시 말해서 잘못하면 김정은의 승리로 끝이 날까 두렵다.

내가 친미국파라는 욕을 감수하더라도 한국의 독립성은 그 친미 길로 가야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세계 최장수민족이 된다는 2030년경에 한국이 어떻게 될지 그때까지는 생존해있지 못할 나 같은 노인은 별로 관계도 없을지 모르지만 상상해보는 것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GAP가 연간 200불을 넘지 못했던 6.26 동란 당시를 회상하며 2030년에 한국에 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년 200불이라면 지금 사람들은 도저히 못살 것 같지만 그 수입으로 대부분 끼니도 때웠고 벗지 않고 살았으며 청춘도 낭만도 모두 있었다. 똥물을 비료로 쓰고 화장실은 냄새가 났지만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야 일주에 한 번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했다. 일년에 한 번 정도 명절에나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는 사람도 있었지만 개울에나 샘물로 몸을 닦고 젊은이들은 성(性)을 즐겼다. Shower 시설이 없어도 깨끗해야할 곳은 깨끗이 간지하는 지혜가 있었다. 봄, 여름이면 산과 들에서 얼마나 많이 나물을 캐어 먹었는지 요즘 젊은이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때는 산에 올라가면 밤, 도토리도 <다음면에 계속>

# 과감한 변화

추재욱 (63, 대뉴욕)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북한 장성의 위협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전쟁 없는 핵 위협이 없는 평화 통일의 열매가 한반도에서 무럭무럭 영글고 있다.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상점이 대세를 이루면서 많은 백화점들이 문을 닫고 실직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가게를 비우고 이에 따라 많은 상가 건물들이 텅텅 비면서 하나, 둘 유령건물(ghost house)이 되어간다.

미중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소국가들은 경제에 초비상이 걸려있다. 그 와중에 북한은 "De-nuke first" 모든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번영을 선택했다.

6.25 이후 전선에 깔린 지뢰밭에서 발목이 잘리거나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DMZ 완전 지뢰 제거에 거의 200년이 걸린다고 한다. 비좁은 북한 땅 곳곳에 설치된 핵무기 밧으로 인해서 한곳이 터지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 북한 전체가 지구상에서

완전 소멸되거나 아니면 핵물질의 부산물로 인해 2천년이상 아니 영원한 불모지가 될 뻔도 했다.

미국은 가공할만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하마터면 B29의 용단 폭격으로 북한이 초토화 될 가능성마저 있었다.

이번 보도된 남북 정상회담 장면에서 평양 여성들의 힘찬 꽃다발 물결, 환한 표정들, 그리고 주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인파를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연설 후 15만 군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는 폐쇄 대신 개방, 억압에서의 해방, 오래 기다려온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열원을 거침없이 드러내 보였다.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 38선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비무장 비핵화로 남북간의 적대 관계를 완전 종식 시키고 다시는 종족살생(genocide)이 없는 평화 화합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제는 핵탄두 대신 (Rocket Man) 김정은이 서울은 물론, 직접 뉴욕까지 날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급변하는 세계의 불황 속에서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변화만이 살길임을 인식한 것일까. 과감한 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창조가 절실히 요청되는 현 시점이다.

- 이 내용은 저자 개인 의견이며 편집회와는 연관이 없음.

# 우리 세대가 참스픈 이유

방준재 (70, 대뉴욕)

여기서 우리 세대(世代)란 1945년 해방 전후 30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나이로는 위로는 100세 전후 아래로는 40대까지 아우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IT의 발전은 한 세대가 30년 이라는 통념을 뭉개 버리고 있는 듯 하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도 세상사 돌아가는 것이 빨라져 한 세대가 30년을 아우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몇 년 차이인지, 10년인지, 거기에 대한 공부해 보지 않아 추측은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어쨌거나, 나는 1945년에 태어났다. 해방둥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 태어났던 해가 해방된 해인지 내 어찌 알겠나만은 나중에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되고, 태어난 해 그 5년뒤 6.25 전쟁이 났다. 대한민국 역사 이벤트중 가장 처참한 사건을 내 어린 눈으로도 본 최초의 사건이다.

1950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주 남강변의 '뒤버리'라는 곳의 인척 집에 피신해 있던 우리 식구. 어느 날 저녁, 진주의 하늘을 새까맣게 B-29 폭격기가 덮었다. 그리고 그 비행기 때가 지난날 다음날 고향 진주는 문자 그대로 폐허가 되고 쑥대밭이 되었다. 진주 철교가 무너지고 내가 다닐 국민학교가 불타고, 나중에 우리는 집 가까이 있는 연화사라는 절에서 2부제 3부제 학교 공부를 했던 것이 내 기억에 초롱초롱하다. 6.25 전쟁, 거기에 뒤따른 고향 진주 폭격,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의 뒤안길에 있는 해방, 그리고 뒤

따른 참혹한 전쟁의 기억이다.

그런 후 내 삶의 몇 년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일상생활 그 자체였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학교 가고, 운동하고,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연 날리고, 제기차기 하고, 학교대항 배구시합 다니고, 사춘기는 저절로 찾아와 예쁜 여학생의 모습에 눈이 팔려 뒤쫓아 다니다 끝내는 인생 최초의 연인이 생기고-. 그런 삶의 궤적을 점철해 보고 있다.

4.19가 터졌다. 고등학교 1학년 때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떠나던 날, 도로변에 줄서 있던 사람들은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었다. 신문 사진으로 보았다. 그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나 생각했다. 권좌에서 몰아낼 때는 언제고, 망명길에 나선 대통령을 배웅길에 서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사진들. 두 개의 사실이 연결이 잘 되질 않았다.

사회가 어수선하듯 학내도 질서란 하나도 없었다. 학생 강패끼리 싸우질 않나. 화장실에 가기도 겁날 지경이었고, 선생님들께 폭력을 휘두르질 않나. 그러다 5.16 혁명이 1961년 5월 16일에 일어났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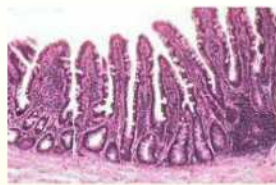
그런데 1997년 IMF가 조국 강토에 불어닥쳤다.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강통차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나의 친구들이 세상의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50대 초반, 한창 젊은 나이에 사회에서 강제 퇴역되어버린 것이다. 사오정(四五停)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강토에 또 흘렀다. 20년 쯤이다. 난데없이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새 정권이 들어서고 나의 친구나이 세대들은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며 말도 제대로 못하는 늙은이가 되어 버렸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는 듯 하다.

자유(自由)가 걸려있는 이 싸움에서 그들은 신발매를 단단히 매고라도 있는가? 이 새벽에 혼자 그들에게 물어 보고 있다.

# 용털돌기

서량 (69, 대뉴욕)



서재 밖 저만치 우두커니 서있는 떡갈나무를 손을 뻗쳐 만지려 하기가 무섭게 내 보들보들한 작은창자가 연동운동을 일으킨다 연동운동을 순수한 우리말로 꿈틀운동이라 합니다 굳이 꿈틀운동이라는 어감이 싫으면 그냥 연동운동이라 하시든지

내 보들보들한 작은창자 안쪽 벽에 널브러져 버르적거리는 용단으로 광화문 10차선 도로 아스팔트를 말끔히 포장한다 샘창자가 흥건한 즙으로 얼룩지고 있어요 눈물이 나와요 내 팔이 엇가락 못지않게 슬금슬금 늘어나면서 자꾸 창 밖으로 뻗어가네 손가락이 떡갈나무 가지와 일치하자마자 울데갈데없이 보들보들한 작은창자 용털돌기 리듬에 척척 걸맞게 아쁠싸, 내 몸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거다 - 2018.08.17

(전면에서 계속) 많았고 눈에는 때뚜기도 많았으며 여러가지로 주식(主食)을 보충했다. 수제비, 국수, 감자, 쑥, 옥수수 등으로 끼니를 때웠다. 경제적으로 굶어 죽어야 마땅하지만 어떻게든 나누어 먹고 기아를 면했다. 야외 빈터에 천막을 치고 땅바닥에 앉아서 교과서도 없이 공부했지만 선진국에서처럼 버스가 집 앞까지 오고 한 Class가 이십명이 넘지 못하며 시청각교육의 혜택을 받고 선생님의 일대일 교육을 받는 선진국 학생들보다 못할 것도 없었다. TV나 Computer 도 물론 없었고 제기차기, 구슬치기, 줄넘기, 딱지치기가 고작이고 겨울에는 썰매나 스케이트를 각자 만들어 논두렁에서 탔다. 여름이면 물이 더럽던 말든 동네 방죽 등, 닦이는 대로 수영 겸 먹을 감았다. 그때는 그때대로 재미도 있었고 즐거웠다. 일년에 몇 차례인지 헤아릴 수는 없어도 제삿날이면 고깃국 냄새가 부엌에서 새어나왔고 동네 혼인잔치엔 돼지를 잡아 고기를 덩어리채로 먹었고 고기가 귀한 음식인 줄을 실감했다. 간혹 영양실조로 더러는 걸려 고생했지만 인생살이의 재미가 지금보다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더러 기생충도 괴롭혔지만 빈대, 벼룩들은 삶의 일부라 여겼고 관광이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들어보지 못했으니 마음은 편했다. 나는 어려운 중에도 신혼여행을 온양온천에 갔었고 당시 돈이 있는 집에서는 제주도까지 내려갔었지만 지금처럼 해외로 가는 신혼여행보다 조금도 덜 흥분했거나 재미가 모자랐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 수사기관이 두렵기는 했지만 현재 중국이나 북한처럼 여행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았고 나처럼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불편함을 모르고 지냈다. 자살률이 세계 제일이라는 말은 내가 한국을 떠난 후에 들리는 이야기이고 그 당시 연탄가스 중독은 많이 들던 이야기이다. 기차여행을 하면서 시골 김밥이나 삶은 계란을 많이 먹었고 천안명물 호두과자나 대전역 우동은 마음을 느긋하게 해준 주점불이다. 단칸 셋방에서도 신혼살림은 즐거웠고 아이가 생기면 생기는대로 낳았다. 우리 부부의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생겨서 지우려 했지만 그냥 낳아서 자란 아이를 지금 보면 죄의식이 든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냉장고, 자동차, 세탁기, 텔레비전 등 현대문명의 살림이 없었지만 된장찌개에 두부만 떠도 반가웠던 시절이었고 아내는 우동이나 짜장면을 사주어도 고마워했다.

GDP가 200불정도 살림이면 너무 초라해서 못살 것 같지만 결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 시절에도 자살하는 예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세계에서 그 율이 제일 높지는 않았다. 미국에서 살아보겠다는 꿈은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중에 꿈이었던 부분도 있고 현실이었던 부분도 있었다. 사람 사는 것이 매 일반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다. 다만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자유(自由Freedom)와 평등(平等 Equality)이 제일 큰 차이점이었고 그 외에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

었다.

2030년 한국여성의 평균수명이 세계 최장이라는 희소식을 축하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되새겨 본다.

요새처럼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면 세상이란 나는 옛날 그 시대로 가능하면 돌아가고 싶다. 평균수명이 세계에서 제일 길어진다고 행복이 제일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눈을 감는다. 아내는 요즈음 세상 같으면 장가도 못갈 위

었다.

2030년 한국여성의 평균수명이 세계 최장이라는 희소식을 축하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되새겨 본다.

요새처럼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면 세상이란 나는 옛날 그 시대로 가능하면 돌아가고 싶다. 평균수명이 세계에서 제일 길어진다고 행복이 제일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눈을 감는다. 아내는 요즈음 세상 같으면 장가도 못갈 위

인이 큰 소리만 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나는 장가도 못갈 병신일까?

만약 그것이 현실이라면 장가도 못갈 사내를 왜 하나님은 만드셨는지 반문하고 싶다. 수명이 90세가 된다고 해도 애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 나 같은 사내는 무슨 재미로 구십년의 지루한 인생을 보낼 것인가. 세상은 차츰 발전한다고 야단이지만 나에게서는 점점 요지경이 되는 것 같으니 내가 혹시 세상을 잘못 보는지 너무 늙은 탓이지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긴다.

2018년 9월 Haymarket Virginia에서

## 농담 골목

매우 순한 총각이 여자를 선보려 갔는데 여자에게 할 말이 없어 그냥 집에 되돌아 왔다. (농용면)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 방구를 꾸었더니 물고기들이 신호를 들었는지 아니면 냄새를 맡았는지 많이 모여 들었다. (농용면)

**아내의 유머**

지난 9월 28일,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아내와 나는 LA의 유명 한식집을 찾았다. 웨이터의 음식주문에 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갈비구이를 주문했다. 우리가 와인 잔을 서로 부딪치고 있을 때 웨이터가 가지고 온 생갈비를 보자 나는 언짢은 안색으로 말했다. "저어, 고기에 웬 기름기가 이리 많지요?"

"고객님, 이놈의 소가 운동을 통 하지 않았나 봅니다." 웨이터가 농담 삼아 던진 말에 나는 한 방 얻어맞은 격이 되어 웨이터를 노려보며 한마디 내뱉으려고 했을 때 아내가 먼저 지혜롭게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제가 이 고기 먹고 운동할게요!"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웃음보를 터뜨렸다. (이덕승)

**같은 부자라도 맛있는 부자, 맛있는 부자로 갈립니다.**

명품에 고급 향수에 온갖 것으로 꾸미고 붙여도 '팡퐁' 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속절없이 추락합니다. 나눔, 환원, 배려, 스스로 낮아지기... 멋지게 사는 사람들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 고도원의 아침편지에서 -

갑신정변:

청과 일본의 대결 -청의 승리

임오군란 후 청군의 도움으로 대원군을 밀어내고 복권하게 된 고종과 민비는 친청 세력인 온건개화파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은 청군이 조선에 주둔함으로써 많이 약화되는 수밖에 없었고 친일세력인 개화파는 점점 권력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청군의 횡포는 중국의 영향이 조선의 쇠약한 국력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개화파 인사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영익은 김옥균, 박영효 등과 절친한 사이였고 급진개화파와 같이 일했으나 미국, 구라파를 돌아본 후에 친민비 집권당인 친청 온건개화파 쪽으로 이탈했습니다. 한편 박영효는 한성관운에서 광주유수로 급기야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크게 그 세력이 위축된 개화파는 일본공사와 접촉하여 쿠데타 계획을 세우고 그 시기를 염탐하던 중, 청나라와 프랑스가 베트남을 놓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자, 조선 주둔군의 반인 1500명을 본국으로 소환했습니다.



갑신정변의 주역 왼쪽부터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낙성식 때 주요인사가 한자리에 모인 현장에서 주위에 불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후 이들을 살해하고 고종을 경우궁으로 옮겨 감금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개혁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경우궁으로 고종을 알현하려고 찾아온 대신 11명을 고종 앞에서 살해했습니다. 다음날 고종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고종이 환궁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경우궁은 협소해서 방어하기가 용이한 편이었으나 넓은 창덕궁은 진압군을 방어하기 힘들어서 환궁 허용은 큰 실수였다고 합니다.

청군 대장 원세개는 고종과 일본공사 다케조에에게 쿠데타 세력을 진압할 것을 통고했습니다. 일본정부는 다케조에에게 청군과 충돌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케조에는 개화파들과의 약속과는 달리 전혀 싸우지 않고 슬그머니 후퇴해 버립니다. 12월 6일 3일만에 쿠데타 세력은 원세개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되고 개화파는 반역죄를 지은 역적이 되었습니다. 황영식과 박영고는 청군한테 참살당하고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은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은 삼척이 멸함을 당하는 참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재필의 역할과 가족들의 피해

서재필은 사관생도와 쿠데타 병력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과 협조하여 요인 살해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쿠데타 진압군으로부터 궁을 수비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삼척이 다 죽거나 중형을 면치 못하는 대역죄를 지은 것입니다. 친아버지 서광효는 투옥된 후 자결하였고 어머니와 3형제는 사약을 받거나 살해당했습니다. 부인은 친정을 찾아갔으나 아버지는 대역죄를 지은 죄인의 아내라고 집 밖에서 극약을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기생으로 여생을 보내지 않으려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2살 난 아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딸은 노비가 되었다가 풀려났으나 행방이 묘연합니다. 보성의 친 외가는 몰락했지만 생명은 부지했습니다.

갑신정변의 배후; 후꾸자와 유키치

사실상 후꾸자와 유키치가 이끄는 일본 진보파가 김옥균을 앞세워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후꾸자와는 3년 동안 조선의 개화파를 지원, 기획, 지휘했다고 합니다. 갑신정변의 실패는 일본 진보파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개화파를 연결고리로 삼아 조선을 근대화시켜 일본이 이권을 차지할

군 원세개가 진압한 후 이홍장은 자기 영토인 텐진에 이토 히로부미를 불러 텐진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의 골자는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고 앞으로 파병을 할 때는 서로에게 통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885년 4월이었고 이 조약이 체결되는 동안 대원군은 같은 도시 텐진에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동양 삼국의 거

# 대원군, 민비 그리고 서재필 (2)

-2018년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 학술대회 강의 초록-

## 은 기 철 (71, 남가주)

물이 한 도시에 있었으나 국력은 그들의 입지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조약을 청일전쟁의 빌미로 이용하게 됩니다.

### 미국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

1884년 9월 20일, Horrace Newton Allen 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정변이 일어난 날 우정국 낙성식 때 크게 부상을 당한 민영익을 치료하여 고종의 총애를 받게 되고 왕과 왕비의 시의가 되었습니다. 광혜원과 제중원을 창설하는 등 처음 5년간은 의료선교사로 일했습니다. 그 후 7년간 공사관 서기 그리고 8년간 공사로 봉직했고 동시에 고종의 고문 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미국에 이로운 조선의 사업과 자신의 치부를 위한 사업에 많이 관여했습니다. 자연히 조선이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서재필은 이것을 비난했고 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Horrace Underwood, Henry Appenzeller, W. B. Scranton, Mary Scranton 등이 1885년에 입국 합니다.

### 러시아의 남하와 영국의 거문도 점령

러시아는 제2차 아편전쟁으로 청나라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중재에 나서서 북경조약을 체결하게 한 대가로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연해주를 청나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북경조약이 맺어진 1860년 이후로 조선은 두만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접경하게 됩니다. 부동항이 없는 러시아는 이제 조선을 넘겨다보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러시아와 패권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오군란 이후 더욱이나 갑신정변 이후에는 조선은 청나라에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슬그머니 러시아를 끌어들여 청나라를 견제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감재를 알아차린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하고 청나라에게 알립니다. 러시아가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던 청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청은 이 사실을 조선에 알렸습니다. 물론 조선 조정은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한 달 동안이나 모르고 있다가 청이 알려주어서야 알았다 합니다.

### 위안스카이; 조선 최고의 권력자, 대원군의 귀국

1885년 10월 5일, 갑신정변을 제압한 위안스카이는 청나라에 돌아갔다가 조선으로 오는 길에 텐진에 구금되어 있던 대원군을 대동했습니다. 청이 대원군을 구금에서 풀어주어 조선에 돌아오는 것을 민비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청은 민비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원군을 귀국시키자, 민비는 친 대원군 세력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3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안스카이는 조선의 감국이 됩니다. 조선의 왕을 감독한다는 뜻입니다. 고종은 완전한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공녀를 데려다 농락했고 고종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훗날에 신해혁명으로 선출된 대통령

손문으로부터 대통령직을 양보 받아 망국 청나라를 접수한 인물이 바로 조선 감국 위안스카이 입니다. 향후 1894년 청일전쟁 때까지 청나라의 조선 통치는 약 10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 영국군 거문도 철수, 베베르 공사와 손탁 입국

1887년 2월 27일 약 2년 동안 조선의 거문도에 머물렀던 영국군은 러시아가 청국에게 조선을 점령할 계획이 없음을 선언하자 철수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고 청은 조선의 장악력에 관계된 러시아의 방해가 없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베베르 공사가 부임하면서 사교계의 여왕 손탁(Antoinette Sontag)이 들어와 손탁호텔을 운영하는 등 외교관, 정치인들과 사귀어 친러파라는 소위 정동파를 만듭니다. (사진: 손탁호텔)



### 19세기 중, 후반의 한반도 정세와 사회

우편제도, 신문, 전신제도, 전기 등 근대국가의 문명의 이기가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재학당, 이화학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발전은 전혀 일반백성들의 생활을 윤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국방을 튼튼히 하여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으로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을 해야 했으나 국방을 하기에 앞서 외세에게 나라의 이권을 내주어서 자기 정권 유지하려 했고, 국민을 착취하여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양반관료들은 관직을 돈을 받고 팔았고 돈을 써서 한 자리 얻은 관리들은 부당한 세금을 걷어 본전과 이익을 챙겼습니다.

고종과 민비의 궁중 예산 낭비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고종 자신도 관직을 팔았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통상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어서 외국으로부터 싸고 좋은 물건들이 범람하여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청나라의 조선 지배는 청나라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는 경제정책을 강요받았고 조선 상인보다 청나라 상인들이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상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인천의 차이나타운과 짜장면집, 호떡집 등은 원세개와 같이 들어온 중국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목구멍에 풀칠을 할 수 없게 된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적떼에 가담하여 전국에 도둑이 출몰했다고 합니다. 식량이 없어서 나무껍질을 먹은 사람들이 대변을 누다가 항문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를 보고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 1894년 조선

임오군란, 갑신정변은 일본 세력을 청이 물리치고 조선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 하게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또다시 권불10년의 그 10년쯤 되던 해가 1894년 입니다. 동학란, 청일전쟁, 갑오경장이 한꺼번에 일어났던 해입니다.

### 동학 농민 혁명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는 반상제도는 소수의 양반이 다수의 백성(상민)들을 착취하는데 십분 이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인내전을 교시로 하는 동학사상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뜻이었고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백성들 간에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1890년대에도 천주교는 국가에서 인정을(다음면에 계속)



**최진훈(70, 대뉴욕)**

지금부터 약 65년 전 저의 어린 시절, 다섯 살부터 열 살까지의 한국 전쟁과 휴전, 수복 및 환도의 시절입니다. 어렵게 살던 그 시절에도 명절은 지켜져서 음력 설이며 추석이나 크리스마스에는 간단히 이웃들과 떡과 사과 정도를 나누었습니다.

‘빵! 빠아~’는 그때 추석날의 추억입니다. ‘빵’은 딱총 소리, ‘빠아~’는 새의 깃털이 붙은 대나무 대롱에 풍선을 달아 풍선을 불고 난 후 풍선의 공기가 새어 나오면서 대롱 끝의 떨관(요즘 유식한 말로는 ‘reed’ 정도 되겠음)을 떨게 하여 내는 소리입니다.

추석날 아침에 눈을 뜨면 우선 집 밖에서 동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부터 들려오고 평소와는 다른 ‘빵! 빠아

~’가 섞여 있었습니다.

값이 싼 딱총은 나무를 잘라 모양을 만들고 고무줄로 맨 ‘공이’를 뒤로 후진해서 고정했다가 슬쩍 위로 밀면 앞에 끼어 놓았던 종이 화약을 때려서 ‘빵!’ 소리가 나게 되어 있었는데 한 열 방쯤 쏘고 나면 나무가 갈라지는 수명이 짧은 총이었습니다.

조금 비싼 딱총은 납으로 주물을 떠서 만든 금속제였는데, 이것은 공이를 뒤로 젖혀 고정했다가 방아쇠로 받침을 풀면 공이가 화약을 때려 소리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딱총은 비싸면 코뿔은 돈의 구매력이 낮아질까 봐 원가를 맞추려고 얇고 크기가 대단히 작아서 꼬마들의 손에도 작을 정도였는데 금속제여서인지 제법 내구성이 있어서 잘 보관하면 음력 설까지 몇 달도 가는 총이었습니다.

그 시절 골목에서 남자 꼬마들의 놀이는 구슬치기와 딱지치기 외에 제기차기나 자치기 정도가 있었고 골목마다 종목이 있었고 종목에 따라서 고수급 챔피언이 있어서 다른 골목의 챔피언이 가끔 나타나 ‘타이를 매치’ 비슷한 것도 열렸고 다른 동네 골목으로 원정을 가기도 했습니다.

구슬치기는 주로 적당한 거리에 구멍을 두 개 파 놓고 거기를 구슬을 굴려 오가며 다른 사람의 구슬을 맞추는 것이었는데 동네 마다 규칙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가끔 다툼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딱지는 대강 조금 두꺼운 마분지 같은 종이에 그림을 인쇄한 것을 구멍가게에서 구매하여 잘라서 썼는데 몇 번 치고 나면 너덜너덜 해지기 일수여서 보통 치기 전에 딱지의 ‘품질’을 규정하고 시작 했습니다. 바람에 딱지가 뒤집히면 친 사람이 그 딱지를 갖는 간단한 ‘룰(rule)’이었습니다.

자치기는 연필보다 두꺼운 두 개의 작은 ‘봉(rod)’을 사용하여 차례차례 서너 가지 방법으로 봉을 쳐서 멀리 보내는 놀이인데 친 사람이 몇 자라고 하면 반대 편에서 몇 자라고 자기 의견을 내어 서로 동의해야 공식 기록으로 인정하여 숫자가 더해지는 민주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제기차기는 우선 조그만 동그런 납판에 구멍을 뚫고 털실을 몇 개 달아 잘 보이도록 해서 중심이 잡힌 제기를 만든 다음 한 발로 서서 다른 발 안쪽으로 그 제기를 차는 것인데 또 박또박 차는 ‘땅강아지’가 주 경기 방

법이었고 다르게 차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어려워서인지 대중화 되지 못하여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위의 골목 게임 들은 나이가 들어 대개 국민학교(초등학교) 23 학년이면 졸업한 후 다른 게임으로 종목이 바뀌게 됩니다. 대개 공놀이를 옮겨갔는데, 조그만 고무공을 사용하는 골목 축구나 간소화 된 초보 야구 비슷한 ‘하루’(?), ‘짹짹’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23년 후에 제법 정식 틀을 갖춘 축구나 야구 쪽으로 가는 것이 통상의 코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추석 무렵 항상 생각나는 것은 골목에서 왁자지껄 꼬마들이 떠드는 소리와 ‘빵! 빠아~’ 소리입니다.

요즈음은 주거 환경이 변하여 위와 같은 ‘골목 시스템’은 벌써 없어지고, ‘어린이 축구 교실’, ‘어린이 야구 교실’, 또 동네 마다 성인 코치가 있는 어린이 축구, 야구 팀이 있거나 혹은 집 안에서 하는 컴퓨터 게임으로 옮겨간 듯합니다. 위의 얘기들은 이미 역사의 일부가 되어 지금 70대 이상에서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추석의 ‘빵! 빠아~’는 참으로 고풍한 추억입니다.  
- 2018년 9월 27일

〈전면에서 계속〉 해주었으나 동학교는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반상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인정해주면 양반들이 자기들의 특권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1892, 1893년에 동학교도들은 교조 최제우의 누명을 풀어주고 동학교 탄압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삼례를 기점으로 하여 충청도 보은에서는 2만내지 8만 명이 운집하는 대규모의 집회가 여러 날 계속되었고 금구와 밀양에서도 작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봉준, 조병갑에게 반기를 들다.**

고부 군수 조병갑은 중앙 관료들이 알아주는 백성 수탈의 명수였습니다. 백성들로부터 걷어 들인 세금과 뇌물을 중앙관료들에게 잘 바쳐서 노른자위 지방관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부는 비옥한 농토와 바다를 끼고 있어서 포탈할 산물이 풍부 했습니다. 1894년 2월 26일 전봉준은 조병갑의 수탈과 학정에 반기를 들고 그동안의 평화적인 시위를 한 단계 뛰어넘는 농민들로 구성된 반군을 지휘하여 각 고을을 공격,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부상들이 사용하던 사발통문으로 방을 부쳐서 반군을 모집했습니다. 그들은 전주성을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정부군과 싸웠습니다.

**하필이면 왜 호남에서?**

조선 전국의 논 30.8%가 호남에 있었고 쌀의 42.3%가 호남에서 생산 됩니다. 탐관오리들이 수탈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 호남에서 벼슬 살게하는 것이 소원이다” 할 정도로 관리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전라도 관리의 대부분이 서울과 충청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전주성 점령과 청에 원군 요청**

1894년 5월 10일, 그러니까 난이 발발한지 3개월 만에 흥계훈이 정부군 800명을 청나라 군함에 싣고 군산에 들어옵니다. 12년 전 임오군란 때, 상궁으로 변장한 민비를 등에 업고 궁을 빠져나가 민비가 반군의 칼날을 피하게 한 장본인이 흥계훈입니다. 조선은 아직도 원세개가 지배하는 청나라 세심임을 상기하면 조선군이 청나라 군함을 이용하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나 마찬가지로 조선의 군인들은 농민인지 군인인지 모르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요즈음 세상으로 치면 예비군이 정규적인 훈련도 하지 않고 있다 전쟁이 나면 차출되어 적과 싸우게 되는 꼴 입

니다. 800명은 막상 동학군과 싸울 때는 겨우 47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악에 반친 동학군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동학군이 전주성에 당도했을 때는 관료와 관군은 전부 도망가고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전주성이 동학군에게 점령당하자 조정은 크게 당황하여 청나라에 원군을 청합니다. 이때가 6월 1일, 그 다음날 일본은 출병을 결정했습니다. 닷새 후인 6월 6일 청군 1500명이 아산으로 출발하고 다음 날에 텐진조약에 약속된 대로 일본에게 통고를 했습니다.

**전주 화약과 동학군 자치 정부, 집강소 설치**

흥계훈은 정부군을 재정비하여 동학군을 공격했고 이 전투에서는 동학군이 패배했습니다. 성 안의 식량은 고갈 되어갔습니다. 때는 모내기 할 농번기였습니다. 농민군의 사기는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6월 11일 그들은 새로 부임한 전주감사 김학진과 화약을 맺고 전주성을 내줍니다. 전주성을 나온 동학군은 모 심으러 집에 돌아가고 남쪽으로 후퇴하여 각 고을을 점령하고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혁명군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집강소는 호남 일원 행정관청 안에 설치되었고 고을의 수령은 자연히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마치 일세기 전 프랑스 혁명을 방불케 하듯 12개의 행정요강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했습니다. 탐관오리의 죄를 조사하여 처벌함, 노비문서 소각, 천인 대우 개선, 청춘과 부 재가 허용, 토지 균등 분배 등을 골자로 했습니다. 아이러니칼한 것은 비슷한 개혁이 한 달 여후 중앙정부에서 개화와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청일전쟁**

청군이 조선에 파병되자 일본 또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뜻밖에 반군이 전주에서 철수하자, 조선정부는 양국에 군대 철수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미 청과의 일전을 각오하고 있었고 이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갔습니다. 7월 23일, 한양에 이미 들어와 있던 일본군은 조선군의 저항을 제압하고 경북공을 점령했습니다. 완전히 허수아비가 된 고종과 민비세력을 축출하고 대원군을 얼굴마담으로 하여 친일 개화파를 집권 시킵니다(경북공 쿠데타). 이제 조선 정계의 세력 구도는 민비-친청 온건개화파에서 대원군-친일개화파로 바뀐 꼴이 되었습니다. 민비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개화파와 대원군의 결탁이 눈앞에 전개된 것입니

다. 12년전 임오군란 때 청과 민비의 연합으로 권좌에서 물러났던 대원군은 다시 질름받이지만 권력의 전면에서 나선 것입니다. 7월 27일에 군국기무처가 설치되고 소위 갑오개혁이 시작 되었습니다. 한양에서는 군국기무처가 갑오개혁, 호남에서는 집강소에서 동학혁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894년 7월 25일, 일본 군함은 이홍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북양함대를 충청도 아산 앞바다에서 대파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를 풍도해전이라고 하고 청일전쟁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60년, 제2차 아편전쟁 이후로 시작된 이홍장의 양무개혁과 일본의 명치유신이 조선땅에서 그 결과를 증명하는 일전을 벌인 대리전쟁이 청일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취약하기 그지없는 국력은 주위 강한 나라에게 전쟁터를 제공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청일전쟁 외에도 임진왜란, 러일전쟁 그리고 한국전쟁도 일종의 대리전쟁이었습니다. 7월 28일에는 성환에서 일본 육군은 청군을 섬멸했고 청군은 평양으로 후퇴하여 전 병력을 집중시키고 일전을 기다렸습니다. 8월 26일, 경북공을 점령하고 고종을 제압한 일본은 별로 어렵지 않게 청과의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조선이 제공할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 나라에서 무려 20만 대군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일본은 평양 전투에 필요한 토지, 건물, 전신을 징발했습니다. 그리고 동학란을 조일 합동으로 제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9월 15일, 일본군은 평양성에서 조선 안에 있었던 청군 병력과 본국에서 들어온 병력이 총 집결해 있는 청군을 대파했습니다. 한편 질름받이 권력을 잡은 대원군은 원래 일본이 요구하던 개혁에는 관심이 없었고 완전한 권력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민비를 폐비시키기 위한 공작을 했고, 손자 이준용이 인사권과 병권을 장악하게 하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집권한지 한 달 후에 평양에 있는 청나라 장수에게 친일개화파를 제거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평양 전투 중에 이 서한이 일본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빌미로 믿을 수 없는 대원군을 퇴진시켰습니다.

**일본공사 이노우에 기로우, 개화파 귀국 허용**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청을 제압하

자, 민비-친청-온건개화파가 무너지고 갑신정변 때 역적으로 몰려 일본에 망명해 있던 급진개화파 세력이 정권의 전면에서 나서게 됩니다. 1894년 8월, 10년만에 박영효와 서광범이 귀국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내무대신과 법무대신에 임명되었습니다. 민비는 대원군이 군국기무처 결정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는 등 일본과 개화파를 좋아하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박영효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민비는 박영효에게 관복을 지어 주고 대저택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박영효를 다리로 일본측과 친해져서 대원군을 밀어내고 자기가 실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곧 원수지간이 될 이들은 당분간 밀원관계를 유지합니다.

**전봉준 체포**

1894년 12월, 7일간 계속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서 동학군은 섬멸되고 전봉준은 체포되었습니다. 동학혁명은 무려 20만명의 희생자를 내고 일단락되었습니다.



**시모노세키조약과 삼국 간섭**

1895년 4월 17일,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이토 히로부미는 이홍장을 자기의 영토인 시모노세키로 불러서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조항은 “조선은 완전무결한 독립국임을 선언한다.” 였습니다. 적어도 조선 500년 동안 계속되던 중국의 종주국 노릇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하든 청이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은 요동반도, 타이완, 평우열도를 일본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로부터 겨우 6일 후 만주 진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던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꼬드겨 일본에게 요동반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할만한 해군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나라 전체가 “와신상담”이라는 말로 위로하며 억울함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훗날 러시아를 제압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삼국 간섭 이라고 합니다.



# 에티오피아 명성병원의 봉사를 마치면서

홍 건 (70, 시카고)

시카고 근교에 있는 Little Company of Mary Hospital 이라는 곳에서 34년 간 봉직을 마치고 은퇴하자마자, 2013년 8월에 에티오피아 명성병원에 도착하였으니까 그동안 만 5년을 아프리카 낯선 땅에서 지낸 셈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20여년 동안 여러 나라를 휴가를 이용하여 한번에 2-4주씩 동안 단기봉사를 다니면서 외국의 선교병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알았고, 또 명성병원은 9년전에 잠시 방문한 적이 있어서 대강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간 곳이지만, 막상 장기로 사역을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떠날 때에는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더우기 떠나기 전에 어느 미국기관의 의사가 “명성병원은 선교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너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경고와 격려의 말을 해 줄때는 나도 모르게 걱정되는 마음이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도착하여보니 미국에서 간 의사들이 주일날 병원내에서 영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멀리 떨어진 성공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주중에도 기도회나 예배드리는 기회가 없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병원을 다녀간 미국 의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일 년을 가족들과 함께 큰마음을 먹고 봉사하러 온 영상의학과 Dr. Y 라는 젊은 의사가 현지인 의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병원에서 판독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간신히 인터벤션하는 환자만 보고 게스트 하우스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을 보고 심각한 문제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봉사하면서 공역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일년에 한두번씩 와서 일주일 동안 인터벤션하는 Dr 조 라는 분에게 때를 쓰다시피 부탁을 하여 그분이 근무하는 I 병원에 가서 석달 동안 병원 앞에 먹자골목안에 있는 원룸을 빌려서 기숙하면서 레지던트 할때 몇 번 해본 후 30년 이상 해보지 않았던 인터벤션을 배우고 돌아와서 쉬운 환자부터 시술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병원에서 맹장수술을 하고 합병증으로 배에 고름이 고여온 환자로 부터 시작하여 차츰 크기가 작은 환부를 수술하지 않고 뽑아내는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어서 하지 않던 시술을 배워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에티오피아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환자들을 돌보아준다는 사명감으로 어렵지만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면서 힘든 케이스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스스로의 짧은 기간 동안 배운 실력의 한계를 느끼고 한국에 가서 수련을 받는 동안 인터벤션 학회도 참석하면서 인연을 맺게된 여러 교수님들을 초대하여 정식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2년짜리 인터벤션 헬로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서울의대 후배 되시는 박재형 교수님이 한국 인터벤션학회의 대부 역할을 하시는 초창기 창립 멤버이신데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신 힘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여러 대학의 10명의 인터벤션 전문 교수님들이 매달 한분씩 오셔서 한 주일씩을 봉사하시고 가시게 되었고, 우리 병원의 현지인 의사 두명과 St Paul 이라는 국립의대 병원의 의사

3명을 포함하여 5명이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시는 교수님들이 St Paul 병원을 통하여 항공편 비행기 표를 지원을 받았고 저희 병원 숙소에서 지내면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시술을 직접 하시고 수련의들이 관찰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현지인 의사들이 직접 시술을 하게 함으로서, 미국이나 한국에 연수받으러 오는 경우 피부색이 다른 의사가 환자를 직접 다룰수 없으나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의사가 바늘로 찌르고 시술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쉽게 배우고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8월 15일 5명의 첫 졸업식을 갖고 수료증서를 전달하였고, 앞으로 새로운 분야를 이끌어 나갈 에티오피아의 인터벤션 학회도 창립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보고 카디악 인터벤션(심장내과)에서도 매달은 안돼도 석달에 한번씩 교수님들이 오시고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여 심근경색 환자들에게 풍선시술(angioplasty)와 스텐트를 넣고 생명을 살리고 현지인 심장내과 의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시작 되었습니다.



2년동안 인터벤션 과정을 마친 현지인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수료증을 증정하면서 마침 병원 내에 에티오피아 정부의 요청으로 문을 열게된 명성의과대학에서 현지인 의사들이 꺼리는 강의를 맡게되어 1학년 class부터 Introduction 강의부터 해부학 시간에 필요한 강의를 하게되어, 미국에서는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community병원에서 판독만 하면서 지내던 사람이 책을 드려다 보고 준비를 하여 강의용 슬라이드를 파워 포인트로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3학년이 되자 병원으로 임상실습을 나오게 되었는데 현지인 의사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당신들이 의대생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니, 자기들은 환자들 보라고 취직을 했지 학생들을 가르칠 능력이 없다는 둥 자격이 없다고 핑계를 대므로, 할수 없이 병원에서 자원해서 가르치는 의사들에게는 과외로 돈을 더 주겠다고 하니, 금방 자세를 바꾸어 너도 나도 하겠다고 나서서 참 쓴 웃음을 지으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맡은 3주 동안에 영상의학과 모든 분야의 과목을 가르쳐야 하므로 우리 과의 의사들이 주저하므로, 미국에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친구들을 동원하여 세 명이 와서 한 주일씩 돌아가면서 신경과, 가슴, 복부, 초음파, CT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모든 분야를 가르치고, 그 다음해 부터는 미국 의사분들이 미리 준비해준 강의 자료를 사용하여 현지인 의사들에게 강의를 하게하고 저들이 맡지 않는 분야를 제가 맡아서 강의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의대생들이 우리 과에 와서 3주일씩 임상실습을 배우게 되어 현지인 의사들에게 두 세명씩 맡아서 판독하는데 학생들이 옆에 앉아서 보게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가르치게 하고, 학생들이 초음파를 직접

스캔을 하면서 환자를 진단하는 단계까지 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 학생에게 미리 중요한 제목들을 나누어 주어 세미나를 준비하게 시키고 발표하는 날 질문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모두들 진지하게 준비하고 열심을 보이는 것이 대견하였습니다. 3주일의 실습이 끝나는 날 필기시험을 보고 곧 이어서 구두시험을 보는데 미국의 전문의 시험을 보듯이 케이스들을 컴퓨터에 올려놓고 차례대로 사진에 나와있는 소견을 찾아서 말로 설명하게 하고 그에 따른 진단을 올바르게 맞추어 내게 함으로써 과연 우리들의 3주 동안의 교육이 제대로 전달되었나를 확인하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여러해를 거듭하는 동안 우리 과의 현지인 의사들도 가르치는 실력이 나아지고 제가 없어도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명성의과대학의 졸업식에 첫 졸업생들과 교수분들과 함께

명성의대의 문을 열은지 6년의 기간이 흘러서 처음 입학한 학생들 23명중에 여러가지 이유로 중간에 탈락된 학생들을 제외하고 12명이 지난 8월 25일 역사적인 첫 졸업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가르친 제자들의 졸업식을 참석하여 감회가 깊었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고 앞으로 에티오피아의 의료계의 좋은 지도자들이 되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졸업생들을 물어본 결과 우리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개설해 주면 지원하겠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겨우 한 명만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11명은 다른 병원에 가서 전문의 교육을 받겠다고 함으로 우리들이 그동안 가르친 과정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처음 이곳을 에티오피아에 왔을 때 의대생만 가르치는 것으로 불충분해서 영상의학과에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해야겠다고 절실히 느끼고 원장에게 상의한 후에 열심히 준비하여 2014년에 정부의 Higher Education 이라는 기관에 레지던트 과정 신설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정부의 관리들과 아디스아바바 의과대학의 영상의학과 아스파 교수가 우리의 application 요청을 검토하러 인터뷰를 나왔습니다. Dr 아스파가 에티오피아의 좀더 많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 병원의 여러 좋은 기계들과 의료진의 구성으로 보아 레지던트 과정을 조속히 신설하여 좋은 전문의들을 교육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고무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병원의 시설을 둘러보고 나서 몇가지 건의 내지는 보완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우선 레지던트들이 앉아서 쉴 공간이 필요하고, 매일 세미나와 교육을 할 방이 따로 있어야 하고, 또 도서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영상의학과와의 관계된 교과서를 구입하여 공부할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오는 기회에 필요한 교과서는 구입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금 더 강력히 밀고 가서 매일 한국에서 오는 컨테이너를 두개 정도 비운 후에 뒷마당에 전기를 설치하고 교실이라고 하고 추진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당시 병원의 좁은 공간 때문에 우리 영상의학과에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위해서 방을 줄 수가 없다고 하여, 영상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연기/포기한다는 원장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좀내 아쉽습니다.

만일 4년 전에 병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밀고 나갔더라면 지금쯤은 첫번 뽑은 수련의가 레지던트 과정을 이미 마치고 스태프로 남아서 후학을 같이 가르치게 되고 이번 졸업생들 중에 제일 우수한 학생을 스카우트해서 영상의학과 레지던트로 뽑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워 할 뿐입니다. 항상 뒤를 돌아다보면 지난날의 결정의 후회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 병원에 올 때부터 선교병원이 아니라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제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주일에 입원환자들과 방문하는 가족들을 위한 예배를 아침 11시에 병원 로비에 마련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현지어로 통역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미국에서 방문하는 의사들 중에 가능한 분들에게는 설교도 하게하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택시를 타고 성공회에 가지 않아도 되게 하였고, 주중에도 매일 과업이 시작하는 시간이 8시인데 20분 전에 모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매주 목요일은 제가 맡아서 영어로 설교하고 나머지 날은 현지인과 방문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몇 명이 모이던 것이 이제는 제법 많은 직원이 모여서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방문하는 아산병원과 명성교회 등의 단기의료선교단원들과 함께 시골을 찾아가서 1-2주 동안의 이동진료를 매년 참가하였습니다. 초음파 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초음파로 진단을 하여 주고 같이 데리고 간 의대생들에게 현장에서 초음파를 사용하여 진단을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초음파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청진기를 사용하여 다른 일반의사들과 같이 밀려들어오는 수백 명의 환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이동진료를 하였던 것과 차이는 만일 수술로 치유가 가능한 환자들은 선별하여 우리 병원으로 오게하여 수술을 해주고 좋은 follow up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현지인 목사님들이 부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6-7시간을 차를 타고 방문하여, 열악한 지방교회에 가서 지도자 강습에 강의를 하고, 주일 예배에 설교를 했으며, 그리고 따로 3-4천 명씩 모이는 특별집회를 열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시카고를 들러서 연 입원환자들을 위한 주일예배에 레 건강진 손인형을 사용하여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

이 사진은 시카고에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을 둘러보다가 한분이 흑시나 하여 가까이 가서 나를 먼저 소개하고 도움을 청하니 나를 뵈니 쳐다 보면서 "당신이 제대로 사람을 보셨습니다"라고 하기에 내가 놀래서 그것이 <다음면에 계속>



이 사진은 시카고에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을 둘러보다가 한분이 흑시나 하여 가까이 가서 나를 먼저 소개하고 도움을 청하니 나를 뵈니 쳐다 보면서 "당신이 제대로 사람을 보셨습니다"라고 하기에 내가 놀래서 그것이 <다음면에 계속>

“Midnight golf in Iceland”, golf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고 한번은 해보고 싶은 round의 하나일 것이다. 나도 젊고 골프를 잘 칠 때는 여러번 계획하고 시도해보던 여행 중의 하나였다. 바쁜 practice와 이런저런 이유들로 못하고 못내 아쉬워 하기만 했다. 그런데 얼마전 river cruise로 인연을 맺은 Viking Cruises에서 ocean cruise를 시작하고 Itinerary에 “Into the Midnight Sun”이라는 두 주일간의 cruise를 포함한 것을 발견하였다.

“Midnight Sun?” 두 눈이 번쩍 뜨이는 두 글자가 아닌가!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골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밤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보아야 하겠다는 욕심이 마음 속 깊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눈이 많이 내려 골프를 칠 수 없던 지난 겨울 어느날 나는 전화를 들었다. 하지(Summer Solstice)날을 포함한 날짜를 찾았으나 이미 매진되어 그 다음 일정을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때도 태양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몇 달동안 나는 행복한 꿈을 안고 지냈다. 참 기다려지는 여행이었다. 그런데 떠나기 3일 전 이메일을 받았다. 내가 산 일정이 oversold가 되어 2주 후로 양보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었다. 물론 그때도 태양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단지 날씨가 허락하면.) 물론 좋은 조건은 방을 explorer suite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상당한 액수의 rebate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해당되는 비행기 여행과 그 이외의 모든 일체 사항을 그 회사에서 다시 arrange를 해 주었다.

Norway의 Bergen에서 처음 Viking Sea배는 참으로 아담한(?) cruise ship였다. 몇 천명이 타는 거대한 ocean ship에 비하여 900명 정도 태우는 배가 참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 suite는 배 뒷쪽 Starboard side 4층에 있었다.



Livng-room, bedroom, Closet, 넓은 Bathroom(Tub and Separate shower room)은 너무도 넓고 편리했다. 뒷쪽에는 배의 끝으로 옆과 뒤가 연결된 발코니가 있었다. 냉장고에는 음료수(알코올 포함)가 무료로 매일 refill 되었다. 배 안의 이곳 저곳의 식당들은 일등급의 음식을 대접하고 있었다. 몇 번 해 본 다른 크루즈 배들과 비교가 되지 않게 좋았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날씨였다. 들고 보니 우리가 연기를 안했으면 택했을 지나간 두 주일 동안은 거의 매일 비가 오고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Midnight Sun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나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7월 16일 밤 자정에 수평선 위에 떠있는 태양을 보는 것이었다.

Bergen을 떠난 우리 배는 Geiranger, Molde, Tromso를 거쳐 7월 16일 아침 일찍 유럽의 북쪽 끝 도시 Honningsvåg에 도착했다. 그곳은 아주 낮은 구름에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번 여행 중에 처음 내리는 비다. 우리는

버스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 한 시간 후에 정말로 지도상 북쪽 끝인 North Cape에 도착했다. 비는 더욱 장대처럼 내리고 찬 바람이 강풍으로 되어 가려 앞을 보기가 힘든 곳이었다. 바위를 파서 만들어 놓은 지하공간에는 그곳의 역사와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찬 비바람과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Cape 끝에 세워놓은 Globe 옆에서 사진을 찍고 다시 버스 속으로 돌아왔다. 몇 년 전 Swiss의 Jungfrauoch에서 옆으로 날리는 눈과 싸우며 사진을 찍던 생각이 났다. 배는 오후 1시 30분 그곳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배가 남쪽으로 향하니 우리 suite는 북쪽 하늘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을 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이 웬 동양 여자가 자동차에서 내리면 문을 열러주고 휠체어를 밀어주고 Good Morning 그리고 May I help you?를 해주는 것이 이상하고 고마워서 많은 환자들이 반가워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캔디를 나누어 주고 혹시라도 기다리는 의사가 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고 와서 불평을 하면 제 아내가 찾아가서 이유를 알아보고 가능하면 환자를 다른 의사가 진찰을 하게 배려해 주는 등 세밀한데 까지 신경을 쓰게 되니 정기적으로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을 받으러 오는 환자하고는 가족같이 친해지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년 동안 에티오피아에서 보낸 기간이 저의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사람은 사는 곳에 항상 어려운 일들이 걸든다고, 오랜 세월을 시카고에서 살면서 잊어버려던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면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되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듯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뒤늦게 접하면서부터 그 동안의 명성병원의 봉사를 마치고 이제는 조용히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어렵게 시작한 인터벤션 헬로워 프로그램은 끝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드디어 5명에게 수료증을 건네주면서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명성병원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그동안 20년간 단기로 방문했던 병원들을 하나 둘씩 접촉을 하여 보니 곧 CT 스캐너를 들여오려고 준비 중인 에집트의 하퍼병원에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어서 오라고 환영을 하여 3주를 방

검은 구름이 하늘을 온통 덮고 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많이 초조했다. 비는 그쳤으나 구름은 걷힐 생각이 없는 듯했다. Living-room에 앉아서 뒷쪽 sliding door를 열고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 검은 구름을 원망했다. 밤 11시가 되니 북쪽 하늘에 구름 사이로 조금씩 햇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마치 솜바꼭질을 하듯 마음을 태우는 태양이 앞뭍기까지 했다. 밤 11시 50분이 되었는데도 구름은 역시 태양을 숨기고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초를 읽기 시작했다. 태양은 바다 위에 그리 높이 있지는 않은 듯, 낮은 구름의 좁은 사이로 금방이라도 얼굴을 내밀려고 붉게 타고 있는 듯했다. 드디어 내 카메라의 시간은 7.17.18 00:00를 보인다. 그러면 나도 Midnight Sun을 포착하는 꿈이 허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부신 태양이 바다 위를 밝히며 나를 꿈에서 깨어나게 한다. 찰칵 찰칵... 시간이 00:01으로 바뀌자 설레이는 마음으로 찍힌 사진들을 확인했다.

붉은 태양, 바다 위의 반사된 물결 7.17.18 00:00! 성공! 이번 여행은 완전 성공이다.

양보의 미덕이 가져온 크나큰 행운으로 생각된다. 여행은 계속 Loften, Shetland Islands, Orkney Islands, 스코틀랜드의 Edinburgh를 거쳐 Thames 강을 거슬러 올라가 London에 7월 23일 낮에 도착했다. 런던에 도착한 날 오후 재수가 좋게 여왕이 스코틀랜드로 떠나 Burlingham 궁전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다. 화려한 내부가 인상적이었지만 붉게 타오르던 Midnight Sun과는 비교가 되지 못했다. 태양을 보는 것을 100% 보장할 수 없는 proposition이라 해도 여러 곳 아름다운 관광이 있으니 설령 Midnight Sun은 볼 수 없다고 해도 여러 면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라고 추천하고 싶다.

<전면에서 계속> 무슨 말씀이요 하고 그 옆에 빈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고보니 자신이 스포츠 기자로서 TV와 신문에 기고를 하는 사람으로 스포츠에 관련한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후 그분이 소개한 청소년 축구팀의 코치 두 명이 우리 병원에 저를 찾아와서 자세한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물론 그 후의 진행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미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는데까지 같이 따라가서 도와주고, 비행기표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 파티에 참석하여 TV 인터뷰도 하고 간신히 떠나기 전에 모든 수속을 마쳤습니다. 미국에 처음 오게 된 청소년 선수들은 매 경기마다 졌지만 사기는 떨어지지 않고 마치는 날까지 선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부모들과 코치들이 부탁하여 스웨덴에서 열리는 고티아 컵에도 출전하게 주선을 해주고 시카고도 다시 참석하여 좋은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별안간 에티오피아에 동양 의사가 한명 나타나서 청소년 축구에 관여하게 되어 일약 유명인사가 되고 여러 팀에서 초청하여 경기에도 참관하는 기회를 가지고 청소년들과 부모들과도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취미가 그림 그리는 것이고 보니 에티오피아를 갈 때 모든 화구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서 틈이 나는 대로 주로 주말에 게스트 하우스 우리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3년 동안 모은 그림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아스니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고, 우리 병원의 새 병동이 문을 열었을 때는 병원 로비의 벽에다 그림을 전시하고 선을 보였습니다. 그 소문이 서울에 까지 알려지고 명성병원을 지은 명성교회의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특별기획 전시회로 교회 지하실 친교실과

북도에 전시를 하고 곧 이어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 FM의 배기성 대표님의 배려로 일주일 동안 인사동에서도 개인전 전시회를 가질 기회가 있어서 에티오피아에서 그린 풍물과 병원 내에서의 수술실 중환자실 등의 그림들을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병원 내에 봉사자들과 어린이를 가진 분들의 요청으로 토요일 저녁에 그림 교실을 열게되어 한인 봉사자 가족은 물론 미국에서 단기로 봉사하러 오신 분들, 현지인 간호사, 의과대학생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들이 많을 때는 10명 이상적이면 3명도 모여서 그림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참가비를 받지 않고 모든 재료를 마련해주니까 초보인 분들이 평소에 그림을 배우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어서 시작을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아무 스트레스 없이 부담없게 시도하고 그림을 배우고 가르쳐 주면서 친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그림교실에 참여한 학생들과

시카고의 살던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많은 짐들을 정리하고 저의 아내는 여름에는 집을 팔기 위해 미국에서 머물면서 떨어져 살았는데 4년 만에 드디어 정든 집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에는 아내도 에티오피아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원래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집에서 살림만 하던 아내는 시카고 병원에서 봉사하던대로 분홍색 smock 유니폼을 입고 병원 정문에 서서 들어오는 환자와 가족들을 영접하는 일

문하였고, 또 에티오피아 시골에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6시간 떨어진 소도 병원도 2주일을 방문하여 상황을 알기 위해 가보니, 얼른 와달라는 환영과 함께 그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에티오피아 의사 면허증을 앞으로 5년 유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명성병원에서의 경험과 이제 나이도 생각해서 앞으로는 한 병원에서 일년내내 상주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필요한 곳을 차례대로 방문하여 한번에 3달씩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이동진료시 의과대학생과 초음파를 사용하여 갑상선 진단

물론 나이가 젊은분들이라면 일년내내 있으면서 도와주면 제일 좋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3달씩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인터벤션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냥 초음파나 CT를 사용하여 관독을 해주고 각 병원에 있는 PAA CS 외과 레지던트 프로그램이나 (기독교 외과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가정의 Family Medicine 레지던트 과정이 있는 곳에서는 그동안 의대생들을 가르친 경험으로 강의도 하고 교육도 담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혹시나 은퇴하신 동문들 중에 단기 혹은 장기로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멜 주소는 kuhn\_hong@yahoo.com 미국 내에서의 핸드폰 전화는 773-682-9059 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고국방문길 9/16

60이 넘는 나이에 긴 여행시간이 소요되는 고국방문길이라 처음 얼마동안은 걱정을 하고 나름대로 적응하느라 좀 힘들었지만 LA 도착 후부터 벌써 고국의 땅 냄새가 물씬 풍겨오는 느낌을 알 수 있었다. 친절한 아시아나 항공의 지상 승무원들로부터 시작해 청순하고 밝은 기내 여승무원들의 친절함 봉사며, 더욱 음료수만 따워야 했던 미국 국내선 여행 후에 나온 LA-인천 간 기내음식인 비빔밥은 하여튼 고국에 대한 향수를 더욱 불러일으킨다. 참 이상하지! 워싱턴에서도 자주 먹던 비빔밥인데도 고국방문 중 기내에서 먹는 비빔밥이 더욱 맛나게 느껴지는 웬일일까? 아마도 향수라는 양념이 더 첨가된 때문 일게다. 멀리 이국땅에서 30여년이상 살아오면서도 고국에 대한 향수를 늘 잊지 못하다가 이런 기회에, 고국의 땅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이런 감정이 더욱 세차게 되살아나는 것 같다. 이동원의 "향수"를 ipod를 통해 들으면서 하는 이번 여행은 떠들썩만 앓다뿐이지 십대 때의 광란(?)의 경주 수학여행 때와는 달리 조용한 중에도 내면의 흥분, 격동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아아-앗, 10대때의 경주 수학여행, 60대의 고국방문 수학(?)여행,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몸이 짜릿해지는 것 같다.

20년만의 고국 나들이 9/16

그러니까 88 서울 올림픽 바로 전해 고국 나들이하곤 전 가족이(딸들은 2, 3주 후에 제각기 서울에서 합류예정) 함께하는 나들이니 한 해가 모자라는 20년-걸코 짧지 않은 세월임에도 - 어느새 무얼 하다가 20년 세월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왔나싶어 자괴감마저 든다. 산다는 게 무언지 정신없이 살아온 지난 20년의 세월, 그동안에 일어났고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되새겨보려 Washington Dulles 공항에서 이륙하여 LA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겨 본다. 기뻐했던 일들, 어려울 때 서러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간다. 어느 누구에나 그렇듯이 힘들었던 일들이 더 선명하게 오래 뇌리에 각인되나보다. 잊으려 해도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

수많은 지나간 일들 중에 뚜렷한 것 중의 하나는 존경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수 보담 어느덧 저 세상으로 간분들 숫자가 더 많음에 놀람을 금할 수 없다. 인생 여정을 3등분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시기에 접어든 지금 철들자 망령든다는 소릴 듣지 않도록 더욱 언행에 조심해야겠다. 또한 좀더 보람있게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다짐해본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 보니 콧등이 시큰해지려 한다.

성묘 9/18

하어-,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하루를 그냥 까먹어 버렸나보다. 해마다 있는 썸머타임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한 시간을 손해 혹은 이득 보는 경우는 익히 아는 바이나 여행을 하고서야 날짜변경선 때문에 하루를 손해 혹은 이득 보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지를 쓰려 하는데 9월 17일 한 일이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는다. 그럴 수밖에. 실제로 한 일이라곤 16일과 17일사이 날짜변경선을 통과한 것 밖에 없으니 말이다. (미국에서 한국갈 때 하루가 빨리 감으로 손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는 그 반대) 잠시 시시한 것에 신경을 썼나보다.

어제 저녁 말로만 들었던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신 두 가지 사실에 놀랐다. 그 첫째는 그 규모의 방대함이다. 시카고 오히라 공항을 많이 참조했다는 공항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상해 국제공항

보다도 더 큰 것 같았으며 설계면에선 훨씬 더 나은 것 같았다. 둘째로는 놀랐다가 보담 인상 깊었던 것은 입국수속의 신속함과 친절함 이었다. 사실 과거에 많은 해외(특히 재미동포) 동포들의 고국방문 후 한결같은 섭섭(?)함 이랄까 화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입국수속시 불친절함 이었는데, 그런 것이 사라져 버린 것 같고 예전과



달리 사람들이 좀 더 여유가 있어보였다. 간편해진 입국수속 덕분에 어젯밤에 잠모임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오늘은 우리 부부, 처남과 함께 부모님과 장인어른의 묘소가 있는 금곡과 양주를 다녀왔다. 성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자식의 도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가족 간의 화목 이런 것을 생각하며 정릉의 조카사위딸 집(한국 체류중 있게 될)으로 돌아왔다.

효부 9/19

80세가 넘으신 이종사촌누님의 딸인 조카 OO 엄마를 내 체류하는 곳으로 오게 해 그동안 가족, 친척들의 근황을 들으며 각종 산채나물로 비빔밥을 해먹으니 어느새 몇 십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든다. 10대 20대 때 아래윗집에 살며 가깝게 지냈었는데 이제 60대가 되서 만나다니! 그러나 옛것처럼 헤어졌던 것처럼 낯설지가 않고 반갑다. 어렸을(?)때에 알아봤지만 효부로 이름나 표창까지 받았다는 조카딸인지라 모든 언행이 자연스러워 보였고 그저 친근감이 흠뻑 스며 나온다.

한국사람이긴하나 오랫동안 외국에서 산 삼촌이 못 미더웠던지 마치 국민학교 신입생 안내하듯 친절하다는 말을 일일이 가르쳐 주더니 그것도 안심이 안되는지 함께 전철을 타고 우리 부부가 만나기로한 친구와의 약속장소까지 동행하는 게 아닌가!

아아, 효부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알 것 같다.

저녁은 우리 부부가 너무도 좋아하는 친구 부부로부터 한국 토속음식으로 잘 대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늦은 밤길 구석진 정릉 숙소까지 데려다 주니 무어라 말해야 할지.

참, 음식점에서의 일화 한 토막. 음식을 주문하면서 으레 술을 시키는데 친구랄 이 술은 새로 나와 아직 시중에 술꾼들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조차 몰라 가르쳐주며 특별 주문했다나 - 그 이름은 "벌떡 주" 라나. 4년 전부터 단주를 해온지라 불행하게도 그 효능을 점검해볼 기회가 없어 유감이었다.

친구 9/20

여독의 풀릴 시간도 없는 강행군일정으로 특히 오늘은 좀 피곤하다.

오늘 저녁은 고교동창들 그것도 대부분 졸업 후 44년 만에 처음 만나보게 되는 날이다.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 걸 보니 여독도 저리 가라 다.

낮에는 작년에 아깝게도 유명을 달린 대학교수였던 친구 OO의 유택을 두 명의 친구와 가기로 돼 있어 약속장소인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갔다. 한 녀석은 44년만의 만남, 그런데도 한 눈에 서로를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머리에 서리가 좀 앉았을 뿐 변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다른 또 한 녀석은 조속(?)했었는 지 고교 때부터의 대머리 그대로였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서로를 젊음(?)을 착각하며 끝없는 대화가 김포가도를 달리는 차중에서

계속되었다. 그들의 도움없는 업무도 못 낼 꼬불꼬불 마지막 시골길을 달린 끝에 친구의 유택에 당도하니 착잡한 심정 무엇으로 표현하겠나! 가까운 인재, 다정했던 친구가 이렇게 가 버리다니!

내가 몸이 좀 불편해진 것도 같고 예정보다도 일찍 서울로 되돌아왔기에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하고 친구들

과 헤어져 정릉속으로 돌아오니 웬걸 수돗물 세계 나오듯 아래로부터 이물질이 사정없이 쏟아지는 게 아닌가! 다행히 워싱턴에서 준비해온 비상약을 먹고 이물을 뒤집어쓰고 있으려니 형수님께서 언제 소식을 들었는지 조제약을 챙겨 가져다 주신다. 그 약까지 마저 먹고 한잠 쪽 자고나니 좀 나아진 것 같다. 서둘러 행장을 하고 시청 앞 만날 장소로 향한다. 모임장소에 도착하니 큰 방을 가득 채운 친구들이 벌써 와 있었다. 족히 30-40명 되 보였다. 사진도 함께 있는 동창회 명부를 보고 미리 익힌 게 있어 친구들 알아보는 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었다. 시간이 흘렀기에 전체 분위기가 좀 늙었다는(?) 것뿐이지 마음들만은 어렸을 옛 적 그대로 들이였다. 그들 중 몇명에 대해선 특별히 이야기를 해야겠다. 중학교 전체수석으로 합격했으나 가정사정으로 대학진학을 못한 (지금 같아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친구가 있어 내 마음속에 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친구가 있는데 꼭 만나보고 싶다는 나의 전갈을 받고 나온 OO, 원래 착실하고 똑똑한 친구인 지라 거의 모두가 명퇴(?)한 마당에 아직도 직장에서 건재함에 기뻐다. 또한 친구는 대수술 후 집에서 요양중에 있음에도 나와야의 만남을 위해 참석해주어 나를 기어코 울리게 했다. 즐거운 담소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지나다 노래방 뒤풀이까지 하고 집에 오니 시침은 거의 자정을 가르치고 있었다. 속이 불편하여 그 좋은 음식들을 밀쳐두고 특별주문(?)한 놀은밥으로 저녁을 때웠더니 노래하는데 힘이 없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 유감이었다. 이렇게 멀리 또 오래 떨어져 있었어도 어렸을 적 다정했던 친구들의 우정은 변함이 없구나!

스승님들과 반가운 만남 9/21

오늘은 중국 황산여행 하루 전날. 정오에 은사님들을 모시고 점심을 하기로 한 날이다. 연로하신 분들이라 저녁시간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점심으로 하기로 000 교장선생님께 여쭙어 결정했다. 여섯분중 네 분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두 참석하시겠다는 말씀에 기쁘기도 하지만 또한 걱정이 앞선다. 친구 몇 명에게 부탁하여 모임 후 스승님들 귀가에 안전을 기하도록 했다. 걱정했던 데로 두 분 선생님들께선 착오로 (내 실책으로 - 어제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오늘 나오시지 못해 얼마나 송구한 지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어제 나오셨다함.)

옛날로 돌아가 학창시절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스승님들과 제자들 사이임을 깜빡 잊는 실례를 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동안 얼마나 스승님들을 잘 모셨기에 한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과 우리들은 스승 제자관계가 아니라 동기생 같다" 하신다.

황산 9/22

오늘은 3박4일 중국 황산 여행의 첫

날.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수속을 밟는 중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 일반석이지만 우리의 좌석은 이미 예약이 돼 있는 데도 초과 예약(아마 늘 그러는 것이 아닌지)이라며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배치를 해 주는 게 아닌가! 어쨌거나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네.

사실은 이번 고국방문 이유중 하나가 금강산 관광이었으나 여러 사정을 감안해 중국 황산으로 정했다. 아무리 황산이 좋다한들 고국 제일의 명산 금강산 대신 황산을 보러가는 심정이 좀 서글프다. 분단의 비극, 국토가 유린되고 수많은 인명이 어처구니없이 희생된 동족상잔의 비극 6.25,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 전쟁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진데 강대국들의 철저히 약육강식논리와 걸핏하면 민족의 이름을 파는 못돼먹은 지도자연하는 자들이 그들의 잇속을 챙기기에만 급급해 민족의 수난은 아랑곳 않고 저지른 범죄, 이것이 6.25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김구 선생님! 그리워진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 황산을 열심히 둘러보며 마음을 달래볼까 한다. 황산에는 4절이라하는 절경이 있는데 기암, 기송, 운해, 온천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름다운 암석과 소나무, 아름답게 펼쳐진 구름바다, 그리고 온천, 동양화에서 흔히 보는 산수화를 연상하면 된다. 년중 50일 정도만 햇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산행에서 이 모두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설악산의 3배 크기, 최고봉인 연화봉은 1864m로 설악산보다 150m 가량 높다. 한 여행가의 말을 빌리면 중국 5대 명산(태산, 형산, 화산, 향산, 승산)을 돌아보면 다른 산은 불필요 없고 황산을 보면 오악도 필요 없다고 황산의 비경을 극찬했다. 자아. 이만하면 기대해 볼만도 하다.

상해-대한민국 임시정부 9/23



어제 서울로부터 상해를 거쳐 오후 늦게 항주 도착 후 저녁식사가 끝나 얼마 안 있어 꿈나라행. 그러나 어제는 뜻 깊은 날이었다. 말로만 듣고 책에서나 읽어 알고 있었던, 늘 한번 가보고 싶었던 상해 옛 불란서 조계자리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를 둘러볼 수 있는 행운이 있었다. 최근 읽은 신재호 선생 전기에 중국에서의 애국 독립운동가들 활동모습이 비교적 잘 기술되어 있어 둘러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독립운동가들께서 오직 조국독립을 위해 피눈물 나는 고초들을 어떻게 하여 기꺼이 또 굳건히 극복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진다. 여러 사진들중 중경 임시정부청사는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본래 여행관광 일정에는 없어 우리의 요구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임시정부청사 방문 하나만으로도 중국여행의 보람은 이루어진 셈이다.

오늘은 항주를 출발하여 이번 여행 중 최대 목적지인 황산으로 향하는 날이다. 어제 취침을 일찍 들기도 했지만 잠을 새벽 3시에 깬 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쳐는 자고 있음으로) 의자를 화장실로 옮겨 서재를 만들어 이 글을 "쓰고 있음에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왜 이리러지?' 무슨 글 쓰는 전문가 되려는 가?" 웃음이 절로 나오려 한다. - 다음호에 계속

# 2018~2019 정균희 회기 회비 및 후원하신 동문 명단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1948 한용현 1949 고영철
- 1950 나수섭 한원봉 1952 박종식
- 1955 노용면 박병원 1956 서상철
- 1957 김용진 김일훈 서영환
- 1958 김순옥 김시한 김해암 박용화 박호현 배영섭 유영호 이만택 이운순 임영신 최병두
- 1959 나길진 김한섭 반응균 방덕환 서경화 신영철 이교락 임낙중 정태진 채규철 최대한 최종진
- 1960 권기홍 김완주 김영환 박춘명 이경화 이덕송 임필순 전희근 조재동
- 1961 광동린 계훈택 김예흠 김영철 김화섭 박승균 박준한 안창현 이재두 이재승 이회백 임필순 장태환 조은순 진창건 정철용 최공창 최태순
- 1962 김석식 남성희 박종건 박종승 이기범 이상원 이상무 이영웅
- 1963 강영호 고영희 권영재 김갑중 김계운 김승태 김주용 김태형 노인규 마동일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선종철 왕규현 윤영섭 윤영욱 윤진수 이범세 이병준 이수인 이재명 이종두 장세곤 장인호 하상태 선우건영
- 1964 강창만 김용두 김태환 신두식 양운택 오유섭 유창남 윤흥기 이정은 이정필 이종성 이홍표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한태진 허선행 홍준표 선우세현
- 1965 구경희 권오연 김덕진 박수안 신백효 윤원길 이광석 이범석 이재진 이정의 이한승 임현재 전영균 조성구 채도경 홍수웅
- 1966 김의신 김진수 김충규 민발식 윤락승 이성근 이영일 장한교 조관상 최순채 한일성 허서룡
- 1967 강명식 김태웅 박정일 이근웅 이민우 이준식 이태안 최무웅 한영수
- 1968 고남규 김재관 김희주 노영일 서윤석 송창호 신규호 임공세 차재철 최 철 황훈규
- 1969 김병오 김중권 서 랑 송용재 오선웅 윤효운 이충호 이치훈 임웅규 최종일 최종진
- 1970 박홍식 송요준 오석일 장극기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고기영 김성환 김일영 김제홍 김창구 김효순 노재홍 박동수 박상호 이상길 이종준 장문석 장 철 정인용 조세진 황동하 홍성진
- 1972 김광호 김현배 오용호 이신재 인영길 장혜숙
- 1973 나두섭 심완섭 위장호 이계석 임준형
- 1975 김원정 박인영 전경배 1976 김정아 한승신
- 1977 박일우 1978 김동수

- 1979 이승호 1981 남명호 이선희
- 1984 서귀숙 1991 강민종
- 1999 박종철 2008 조수정

- 지난 회기 회비 납입자 명단에서 김천일(73) 동문이 누락되어 다시 올립니다.

### 36th CONVENTION DONATION

- 김해암(58) 500 채규철(59) 200 권기홍(60) 500 박종승(62) 100 김계운(63) 25
- 이홍표(64)2000 허선행(64) 200 전영균(65) 100 김진수(66) 100 윤효운(69) 100
- 김성환(71)1000 오용호(72)1000 나두섭(73) 200 김원정(75) 100 김정아(76)1000
- 한승신(76)1000

### GENERAL DONATION

- 노용면(55) 200 서상철(56) 75 임종원(57) 75 김해암(58) 50 채규철(59) 200
- 최종진(59) 100 권기홍(60) 500 이경화(60) 75 진창건(61) 75 박종승(62) 100
- 송용덕(63) 100 선우건영(63)125 신경호(63) 75 이범세(63) 125 장인호(63) 75
- 이홍표(64) 175 허선행(64) 100 박수안(65) 75 이재진(65) 200 임현재(65) 100
- 김의신(66)1000 장한교(66) 75 조관상(66) 50 강명식(67) 75 차재철(68) 75
- 최종일(69) 100 서 랑(69) 275 조남현(70) 50 오석일(70) 150 이성길(71) 980
- 오용호(72) 200 박인영(75) 50

\*김의신-멘토상 수상 상금 전액 \* 이성길 - Silent auction profit)

### CHARITY FUND

- 채규철(59) 200 최태순(61) 25 박종승(62) 100 신두식(64) 100 허선행(64) 100
- 채도경(65) 75 김창구(71) 100 김정아(76) 75 한승신(76) 75

### SCHOLARSHIP FUND

- 채규철(59) 200 박종승(62) 100 이기범(62) 375 양운택(64) 100 이홍표(64) 100
- 허선행(64) 100 이광준(65) 75 서윤석(68) 500 조남현(71) 100 조세진(71) 125
- 김효순(71) 125

### GREEN PROJECT FUND

- 채규철(59) 200 박종승(62) 100 이홍표(64) 100 허선행(64) 100 민발식(66) 100
- 차재철(68) 100 김병호(69) 100 김정아(76) 500 한승신(76) 500 남명호(81) 200
- 서귀숙(84) 100 박종철(99) 50

**회비와 donation을 PayPal을 이용하여 내시는 회원들께서는  
Fee를 포함한 금액을 내시어  
동창회가 net금액으로 받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ayPal에서 은행 구좌로 옮기는 것은 바로 할 수가 없고, 일정 기간을 지나서 하게 되는데 Fee를 떼고 들어오므로 장부 정리에 고충이 많습니다.

##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의과대학 관련) 보고

### 장학생 (2013년 ~ 2018년)

2013년도 김기태-노정옥 장학금	3명 (학생당 \$6,000)
2013년도 김용재 장학금	4명 (학생당 \$5,000)
2014년도 김기태-노정옥 장학금	2명 (학생당 \$2,500)
2014년도 김용재 장학금	5명 (학생당 \$2,500)
2014년도 민인기 장학금	1명 (학생당 \$5,000)
2015년도 김기태-노정옥 장학금	6명 (학생당 \$2,500)
2015년도 김용재 장학금	9명 (학생당 \$2,500)
2016년도 김기태-노정옥 장학금	4명 (학생당 \$2,500)
2016년도 김용재 장학금	7명 (학생당 \$2,500)
2016년도 정병욱 장학금	2명 (학생당 \$2,500)
2017년도 김기태-노정옥 장학금	8명 (학생당 \$2,500)
2017년도 김용재 장학금	12명 (학생당 \$2,500)
2017년도 정병욱 장학금	1명 (학생당 \$5,000)
2017년도 이만택-이안나 장학금	5명 (학생당 \$1,700)
2018년도 김기태-노정옥 장학금	5명 (학생당 \$2,500)
2018년도 김용재 장학금	8명 (학생당 \$2,500)

### 연구기금

- 2017년 2018년 유인경 미생물학 연구기금 (년 \$30,000): 성승용 교수
- 2018년도 김기태 병리학 연구기금 (연구건당 \$10,000):
  - 이식 간의 이식 거부반응과 재발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감별진단 마카로시 간조직 내 Foxp 3 발현 림프구의 비교연구. 책임교수: 이경분
  - 유방암에서 림프절 전의 예측 바이오 마커 발굴. 책임교수: 유한식 이경분
- 2018년도 김현 병리학 연구기금: (연구비 \$10,000)
  - 제 1형 근육섬유에서 COX-2 의 특이적 발현 규정. 책임교수: 최기영
  - 대장암에서 메틸화 마커를 이용한 침윤 림프구의 정량적 평가기법 개발 책임교수:강경문 (연구비 \$20,000)
  - Diffuse large B celllymphoma의 면역표현형과 세포기원에 따른 면역 미세 환경 특징과조절기전 규명. 책임교수: 전윤경 (연구비 \$20,000)
- 김의신 핵의학과 교육기금: 2013년 - 2018년 현재 매년 \$8,000 지급
- 이홍표 순환기내과 연구교육기금: 2013년~2018년 현재 총 \$220,000 지원

의학도서관 기부하신 분들의 명단은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모교와 후배를 사랑하시어 후원하여 주신 여러 동문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이사장 이만택(58)

### 서울대학교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Tel: 212-768-9144

###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에 온 감사편지

김용재 박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혜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3년도에 의예과를 입학하여 햇수로 6년째 서울대학교의과대학에서 공부 중입니다. 본과 1, 2학년 때는 강의실에 앉아 수업만 들었지만 3학년년부터 병원에서 직접 실습을 돌며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은 졸업 학년입니다. 실습을 돌면서부터는 나름대로 의학적 지식도 자리잡기도 하고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병원 현장을 직접 보면서 틈틈이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종락 - 1, 2학년 때 수업을 들으며 공부할 때는 의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한 지식을 채워넣기에 바쁘고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생각할 기회나 시간이 없었는데 실습을 돌면서부터는 단순히 의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나름의 기준과 생각들이 많이 생겼고 그만큼 더 의미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제가 많은 교수님들, 선생님들을 보며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의사가 된 이후에는 경험이 많이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를 학생이든 동료, 후배 의사가든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일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끝까지 잊지않고 감사하게 받아왔던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신 박사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장학금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에게 더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이후에 제가 받은 것 이상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부를 할 때나 의사가 되어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박사님이 제게 주신 긍정적인 영향만큼이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 김혜린 올림

제가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본과과정에서 재학 중 저의 외할머니께서 중환자실에서 투병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었기에 자주 문병을 가며 회복하시기를 바랐지만,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 종락 - 그러던 와중 감사하게도 장학금을 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업에 충실하면서도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의대생으로서의 활동의 필요성에 이 둘을 병행해오던 제게, 집안사정이 겹치며 당장 학업 등록금을 위한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수혜를 통해 정말 감사하게도 학업에 집중하여 사회에 더욱 공헌할 수 있는 의학공부와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양측 모두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21세기 한국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수혜 받고 제가 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사회로 환원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 의대생으로서 제가 받았던 도움을 떠올리며, 미래에 곤란에 처해있을 누군가에게 저의 도움의 손길 -그것이 재능기부가 되었던, 금전적 지원이 되었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내주신 응원과 지원에 정말 감사드리며, 이러한 마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 또한 어려운 사람, 필요 속에 놓인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한 사람의 의사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유기훈 올림